

리아호나

깊이 있는 배움을 통해
여러분의 신성한 잠재력을
성취하십시오, 32쪽

다른 사람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초대하기, 13, 14, 80쪽

가정을 외설물로부터 지켜 낼 수 있는
8가지 방법, 18쪽

어떻게 정직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가, 26쪽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제프리 하인**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그를 너희의 회당이나, 너희의 예배하는 장소에서 쫓아 내지 말지니, 이는 그러한 자에게 너희가 계속하여 성역을 베풀어야 할 것임이니라. 이는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므로, 내가 그들을 낫게 하지 않을지, 그리하여 너희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방편이 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제3니파이 18:32)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제자의 삶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헌납된 삶을 산다는 것



표지
사진 촬영: 코디 벨

특집 기사

- 14 **저활동 회원들을 축복하며**
터렌스 엠 빈슨 장로
우리가 영을 동반하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길 잃은 양들을 무리
안으로 데려오려는 우리의 노력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 18 **자녀들이 외설물을 거부하도록
돕는 여덟 가지 전략**
리사 앤 톰슨
부모는 범람하는 외설물 속에서도
자녀들을 지키고, 그들이 외설물에
맞서 이를 거부하도록 준비시킬 힘이
있다.
- 26 **정직, 신성한 표준**
닐 엘 앤더슨 장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정직은 영성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 32 **온 영혼을 위해 배우다**
킴 비 클라크 장로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영혼으로 배우십시오.


교회 본부 기사

- 8 2017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 10 교회 소식: 지역 회장단
- 12 단상: 시계
크리스티 러쉬 반즈
- 13 교회에서 봉사하며
우리를 염려하시는 주님
페이지 앤더슨
- 38 신앙의 초상: 니키 코빙턴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돌아오십시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46

- 44 종교 교육원은 어떤 곳입니까?
웨인 엘 데이비스
종교 교육원은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고, 영적인 보호를 받으며, 복음 지식을 얻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46 종교 교육원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리아 웰커
우리는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종교 교육원이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 보세요.
힌트: 여러분은 경전에 나오는 인물들 중 누구처럼 되고 싶으세요?

- 50 세미나리: 연결 고리를 맺는 곳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과 고난을 이해하려 할 때나, 경전을 이해하려 할 때,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는가?
- 54 나는 어떻게 성전 사업을 돕는가?
메건 암네치
이 설레는 사업에 여러분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 56 가족 기도 챔피언
샬럿 라카발
가족이 함께 가족 기도를 더 잘 하도록 청소년들이 들려주는 열 가지 조언.
- 58 충실하겠다는 결심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네 가지 결정
- 62 포스터: 개인의 가치
- 63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기독교인의 용기로 대응하는 방법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64 질의응답
“적절치 않은 언어를 사용하고 과도하게 비디오 게임을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69

- 66 나쁜 사진
로리 플러
어떤 친구가 타란에게 나쁜 사진을 보여 주었어요. 타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68 쉘든 자매님의 기적
엘리스 디
쉘든 자매님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함께 자매님을 돕기로 했어요!
- 69 니파이처럼
메이슨 제이
니파이에 대해 배운 뒤로 저는 니파이처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 70 사도들의 답변: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닐 엘 앤더슨 장로
- 72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조던 라이트
- 72 예수님의 이름들
이 가정의 밤 아이디어를 사용해 보면서 구주에 대해 더 잘 알아 보세요.
- 76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은 용서하세요
킴 웹 리드
- 79 색칠하기: 나는 경건할 수 있어요

54

인터넷 활용하기



liahona.lds.org에서

기사를 읽고 여러분의 기사도 보내 주십시오.

facebook.com/
liahona.magazine에서

영감에 찬 메시지를 찾고 나누십시오.
(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만 제공됩니다.)

liahona@ldschurch.org로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store.lds.org를 방문하거나 지역 배부 센터를 방문하여

구독을 신청하십시오. 와드 서기에게 부탁하거나 1-800-537-5971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미국 및 캐나다 지역만 해당)

아이콘 그림: 게리 이미지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38, 43, 56, 72

간증, 4, 38, 40, 63

개인의 가치, 62

개종, 4, 42

교육, 32, 44, 46, 50

기도, 32, 56, 76

미디어, 18, 64, 66

봉사, 13, 68

사랑, 13, 63, 68, 70, 72

선교 사업, 4, 13, 40, 63

선지자, 58

성신, 12, 32

성전 사업, 32, 54

성찬, 41

세미나리, 50

순종, 58

신권, 14

신앙, 58, 63

양육, 18

역경, 4, 43, 58

예수 그리스도, 74, 76

외설물, 18, 66

용기, 63, 66

용서, 76

우정, 50, 63, 64, 70, 80

재능, 38

정직, 26

제자 됨, 4

종교 교육원, 44, 46

친절, 13, 69

침례, 4, 58

하나님 아버지, 50, 70

헌납, 7

활동 촉진, 13, 14, 80

회개, 14, 3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제자의 삶

30년 전 가나에서 도우라는 이름의 한 대학생 여성이 난생처음 후기 성도 교회 집회소로 들어왔습니다. 도우는 친구의 초대를 받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한 마음으로 와 본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도 친절하고 따뜻해서, 도우는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교회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깊은 감명을 받아 곧 교회에 대해, 그리고 것처럼 큰 기쁨에 차 있는 교회 회원들에 대해 더 배워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자마자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그녀가 이 교회에 대해 알아보는 일을 반대하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말해 주며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도우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가졌고, 이 복음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복음은 그녀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도우는 침례의 물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뒤에는 연구와 기도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또한 금식하면서 자신의 삶에 성신의 영향력이 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도우의 간증과 신앙은 더욱 강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주님을 위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그녀는 한 귀환

선교사와 교제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남성은 수년 전에 그녀에게 침례를 주었던 바로 그 선교사였습니다. 후에 그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습니다.

도우 카쿠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을 처음으로 경험한 이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녀의 삶이 항상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삶에서 겪는 고통과 절망을 감내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두 아이를 잃었던 일도 포함됩니다. 두 아이를 잃었던 일과 그 슬픔은 아직도 그녀의 가슴 한 구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남편 앤서니는 서로에게, 그리고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우 카쿠 자매가 침례의 물가로 들어간 지 3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최근에 또 한 번의 전임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한 그녀의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카쿠 자매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반짝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더 행복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녀의 간증은 확고합니다. “저는 구주께서 저를 당신의 딸이자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을 압니다.(모사이아서 5:7; 이터서 3:14 참조) 그래서 저도 그분의 친구로 불리기에 합당하기 위해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제자로서 사는 길이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평안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기쁨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도우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삶의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듯이, 여러분도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선택했으며, 그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강화해 주셨는지에 대한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화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도우 카쿠 자매가 교회로 개종할 당시의 모습.



남편인 앤서니 형제와 함께한 카쿠 자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합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사실 카쿠 자매님의 이야기는 새롭거나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진리를 알고자 소망했고, 영적인 빛을 얻기 위한 값을 치렀으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시련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반대를 겪든, 어떤 슬픔을 감내하게 되든, 그녀는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녀가 늘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삶의 고난을 단순히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이 시련 없이 늘 순탄하기만 한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고통이 있고, 실망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나아가려는 소망도 잃은 채 압도되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신앙으로 충실히 남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¹ 매일 매 순간을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봉사하며 작은 일일지라도 망설임 없이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작은 행위로 큰 영향력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조금 더 용서하는 사람들,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² 작은 돌봄과 사랑의 행위로 조금씩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축복되고, 만족스럽고, 평안한 삶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루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 만한 것이[며] ...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³ ■

주

1. 모사이야서 4:6 참조.
2. 마태복음 5:7 참조.
3. 니파이전서 11:22~23.



청소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얻게 되는 기쁨

여러분은 힘겨운 시기를 지낸 적이 있는가? 그때 여러분은 힘을 내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고통이 있고, 실망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나아가려는 소망도 잃은 채 압도되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가 준 해결책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즉 “충실히 남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말씀했듯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 작은 행위로 큰 영향력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본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저녁식사를 만들어 드리기”와 같은 봉사 관련 아이디어나 “동생들에게 더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와 같은 계명 준수 관련 아이디어를 적어 볼 수 있다. 다음에 낙담하게 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목록을 꺼내어 그 중 한 가지 항목을 실행해 보자!

어린이

도와주면 행복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친절해지려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친절하게 생활하면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이번 주에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두세 가지를 골라서 동그라미를 쳐 보세요.



헌납된 삶을 산다는 것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알고자 영감을 구한다. 하나님의 딸들이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영생의 축복을 얻도록 어떻게 더 잘 준비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헌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별하거나 거룩한 목적에 쓰이도록 성스럽게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생에서 얻는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시간과 선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헌납할 때 옵니다.”¹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헌납을 단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소유한 물질을 바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납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²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 자신을 헌납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더욱 커질 것이다. 헌납된 삶을 살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신앙
가족
구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인 캐롤 엠 스티븐스 자매는 이렇게 말씀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우리가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변화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보이며, 또 다르게 행동합니다. 성약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딸이 되었기에 우리는 듣고, 읽고, 말하고, 입는 것도 다릅니다.”³

헌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은 성약이다. “그 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예레미야 31:33) 헌납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보충 성구

데살로니가전서 1:3; 교리와 성약 105:5
reliefsociety.lds.org

주

1.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성별된 삶을 고찰하며”,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6쪽.
2. 닐 에이 맥스웰, “네가 행한 일을 성결케 하시리로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9쪽.
3. 캐롤 엠 스티븐스,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완전히 깨어나도록”,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15~116쪽.



생각해 볼 점

삶을 주님께 헌납하면 더욱 그분처럼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2017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7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을 읽을 때,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및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다.



신성한 사비리아인, 율리안, 캔디 페이

교리 살펴보기

다른 이를 차별하고 박해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인종과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어 잔혹한 편견과 차별을 감내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짧게나마 접 … 했습니다.

박해는 비웃음, 괴롭힘, 배제, 고립, 비난, 증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험악하게 대하는 편협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편협은 표현의 자유를 동등하게 부여하기를 꺼릴 때도 부분적으로 드러납니다. 종교인을 비롯해 누구든 공개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혐오할 권리는 없습니다.

… 구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 남을 대접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7:12] 존중받으려면, 존중해야 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개종은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으로 이어지며, 그럴 때 “성신”은 “완전한 사랑”[모로나이사 8:26] 즉 다른 사람을 향한 “거짓 [없는] 사랑”으로 [메드로전서 1:22]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선한 목자”,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31~32쪽.

선지자의 약속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 조상을 위해 봉사하리라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조상에게 이끌릴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여러분이 그들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상들을 위해 이 일을 성취하리라는 점에서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

이것은 우리 세대의 일입니다.] … 여러분도 제가 그랬듯, 조상의 사진을 들여다볼 때 마음에 사랑이 커지는 경험을 통해 이를 느껴 보셨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여러분은 카드에 적힌 이름이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지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느꼈다는 느낌을 받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가족과 함께 영광스럽게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하고 필요로 하는 영감 어린 도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하나님 가족의 집합”,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21, 22쪽.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는다는 것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죄에 저항하다 보면, 죄에 대한 면역력을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 청년 병사들은 “용기[에] 있어 심히 용맹스러웠거니와 ...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 맡은 일에 항상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앨마서 53:20~21] 이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미덕을 무기로 삼아 대적에 맞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 우리 자녀들은 매일 개인적으로 제자로서의 생활 양식을 확립해 가면서 영적인 갑옷을 입습니다.”

조이 디 존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세대”,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88쪽.

여러분을 위한 해답



제가 받은 응답이 성신에게서 왔는지 그냥 제 생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니파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끌렸느니라.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나아갔[느니라]’[니파이전서 4:6~7]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속삭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황을 합리화하며, 자신이 영적인 느낌을 감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느낌이 그저 자신의 생각일 뿐인 건 아닌지 의문을 품습니다.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여 의구심이 또다른 의구심을 낳게 되면, 우리가 경험해 보았듯이 우리는 영을 쫓아 보내고 신성한 권고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열에 아홉은 잘 해낼 것입니다.”¹⁷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령 인도하시어”,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95~96쪽. conference.lds.org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아래 연사들이 전한 말씀을 더 읽어 보려면 2017년 5월호를 보거나 conference.lds.org를 방문한다.

1.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생에서 _____을 결정하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닐 엘 앤더슨, “세상을 이기십시오.”
2. “특정 _____에서 봉사하라는 지명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사업에 봉사하라는 부름에 비하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
3.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국에서 더 중요한 _____, 덜 중요한 _____은 없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너희 중에 큰 자.”
4. “_____을 구하려는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DNA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크 에이 브래그,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

교회 소식

news.lds.org에서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볼 수 있다.

새로 지명된 지역 지도자들

제 일회장단은 2017년 8월 1일 수요일자로 지역 지도자 임무 변경을 발표했다.

칠십인은 계시에 따라 부름받으며,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전 세계에서 성역을 베푸는 십이사도 정원회를

보조한다. 칠십인 회장단과 지역 회장단은 지리적인 지역을 감리하며, 지역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지명된 지역 내에서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을 가르치고 격려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필멸의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칠십인을 부르셨고, 열두 사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 말을 듣는 자는 곧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며 그들을 “앞서” 보내셨다.(마태복음 10:1, 16~17; 누가복음 10장 참조) ■

미국 및 캐나다



엘 휘트니 클레이튼
전 지역 보조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유타 북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남



울리세스 소아레스
아이다호
북미 중앙



린지 로빈스
북미 남동



게릿 더블유 공
북미 북동



후안 에이 우세다
북미 남서



패트릭 키아론
북미 북서
북미 서

아프리카 동남



에스마크 파머
제1보좌



케빈 에스 해밀턴
회장



조니 엘 코호
제2보좌

아프리카 서



마커스 비 내쉬
제1보좌



터렌스 엠 빈슨
회장



래리 에스 캐처
제2보좌

아시아



데이비드 에프 에번스
제1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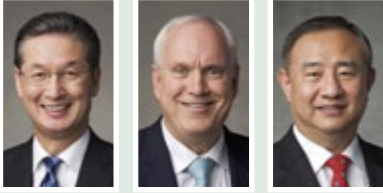


랜디 디 펑크
회장



피터 에프 웨이크스
제2보좌

북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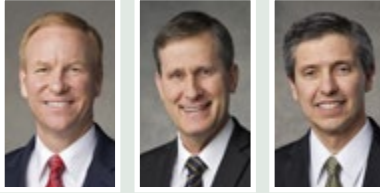


가즈히코
야마시타
제1보좌

로버트 시 게이
회장

최유환
제2보좌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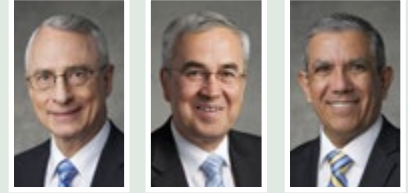


더블유 마크
배셋
제1보좌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트스
회장

호아킨 이
코스타
제2보좌

카리브 해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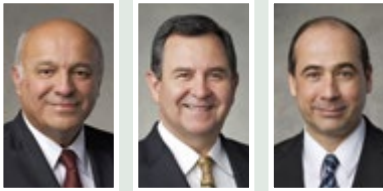


클라우디오 디
지빅
제1보좌

월터 에프
곤잘레스
회장

호세 엘 알론소
제2보좌

중앙아메리카



조지 에프
제블로즈
제1보좌

에이드리언
오초아
회장

발레리 브이
코르돈
제2보좌

유럽



게리 비 사빈
제1보좌

폴 브이 존슨
회장

마시모 데 페오
제2보좌

유럽 동



크리스토펬 골든
제1보좌

제임스 비
마르티노
회장

알렉시 브이
사마이킨*
제2보좌

멕시코



아를포
발렌주엘라
제1보좌

폴 비 파이퍼
회장

라파엘 이 피노
제2보좌

중동/ 아프리카 북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교회 본부에서 관리함

앤소니 디
퍼킨스
교회 본부에서 관리함

태평양



크레이그 에이
카든
제1보좌

오 빈센트
할레크
회장

이안 에스 아던
제2보좌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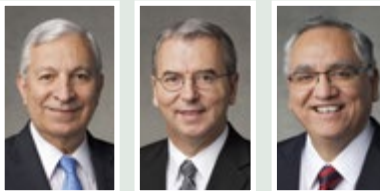


앨런 디 헤이니
제1보좌

세인 엠 보웬
회장

에번 에이
쉬무츠
제2보좌

남미 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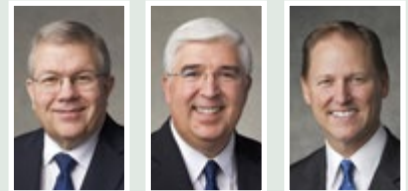


엔리케 알
팔라벨라
제1보좌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회장

휴고 몬토야
제2보좌

남미 남



앨런 에프 패커
제1보좌

호세 에이
테제이라
회장

마크 에이
브래그
제2보좌

* 지역 칠십인

시계

크리스티 러쉬 반즈

성신은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시계와 닮은 점이 많다.

내 아들 조슈아는 두 돌 무렵 시계에 흠뻑 빠져 있었다. 집 안에서 나와 함께 걷다가 시계 옆을 지나갈 때면, 조슈아는 멈춰 서서 시계를 들여다보고 싶어 했다. 아들이 특히 좋아했던 것은 시계에 귀를 바짝 대고 거기서 나는 재깍재깍 소리를 듣는 일이었다. 한동안은 시계만 보면 멈춰 서서 반드시 그 소리를 들어야만 하기도 했다.

이 단순한 행동을 보면서 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시계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항상 소리를 내고 있었다. 둘째, 시계가 항상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작은 소리를 들으려면 가까이 다가가 멈춰 서서 아주 조용히 해야만 했다.

성신은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시계와 닮은 점이 많다. 우리가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고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성신은 변하지 않는 동반자가 될 것이다. 성신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지만 그 고요한 속삭임은 세상의 소음 속에

묻혀 버리곤 한다. 아들과 내가 시계의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 움직임을 멈추고 조용히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의 고요한 속삭임을 듣거나 느끼기 위해 조용히 멈추어야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경전에서는 영의 음성이 ‘큰’ 것도, ‘거친’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레의 소리도 아니요, 크게 떠드는 소란한 음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으나

‘영혼에까지 꿰뚫을 수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제3니파이 11:3; 힐라맨서 5:30; 교리와 성약 85:6~7) ...

영은 소리치거나 큰 손으로 악수를 하여 우리의 주의를 끌지는 않습니다. 영은 속삭입니다. 영은 극히 부드럽게 감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충분하도록 강력하게 영의 음성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드러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영이 떠나가서 우리가 찾고 귀 기울[일]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주님의 등불”, 성도의 빛, 1983년 10월호, 31쪽)

나는 시계에서 들리는 잔잔한 재깍재깍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영의 고요한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히 멈추어야 한다는, 아들이 가르쳐 준 그 단순한 교훈을 늘 마음속에 떠올린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우리를 염려하시는 주님

페이지 앤더슨

우리 가족이 와드 평의회 of the 주요 안건으로 등장하던 시절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단지 와드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 독님이 내게 청녀 회장 부름을 받아들이겠냐고 물어보시자,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청녀를 맡기에는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름을 받아들이고 삼 개월이 지날 무렵, 우리 와드의 경계가 곧 바뀔 것이며 나는 청녀 부름에서 해임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슬펐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며 왜 주님은 내가 청녀를 이렇게 사랑하게 하셨고, 또 왜

그런데 이런 우려를 말하고 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를 염려하고 계신다는 영의 속삭임이 들렸다.

수년 전 남편과 나는 와드 평의회 of the 주요 안건으로 등장하곤 했고,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큰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다시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으나,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 스테이크 회장단과 감독단, 그리고 가정 복음 교사들은 여러 해 동안 우리를



“사랑이 담긴 봉사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대한 헌신은 구주의 필멸의 생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주님의 제자들의 특성일 것입니다.”

제프리 알 홀름드 장로, “모든 새로운 회원들이 알고, 모든 오래된 회원들이 기억하길 바라는 것들”, 리야호나, 2006년 10월호, 12쪽.

날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청녀 회장으로 부름받고 와드 평의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고 나서야 눈이 열렸고, 와드 평의회에서 집중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와드 평의회가 특정 회원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평의회가 회원의 숫자에 연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가 부름 안에서 봉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고 계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

우리 가족이 와드 평의회 of the 주요 안건으로 등장하던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단지 와드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셨기에 평의회 직원들도 우리를 염려했던 것이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관심사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강화하고자 하시며, 다시 활동화시키는데 필요한 계획을 마련하셨다. 그리고 그 계획은 남편을 도왔던 감독님이나 가정 복음 교사 같은 사람들에게 의해 실행에 옮겨진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이렇게 빨리 청녀들과 작별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쭙었다. 답을 얻은 것은 뜻밖에도 와드 평의회에서였다.

그 당시 평의회 직원들은 스테이크 대회에서 와드 회원들을 돕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 달라고 요청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회원들이 단지 그런 말씀 주제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봐 염려스러웠다.

돕고자 애써 주셨다.

그 후 우리는 새 와드로 이사를 왔다. 인내심 많고 사랑 많은 감독님과 가정 복음 교사는 남편과 좋은 친구가 되었다. 이번에는 남편도 영을 받아들였다. 남편은 물론경을 읽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간증을 되찾았다. 우리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되던 그 아름다운



터렌스 엠 빈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활동

회원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영을 동반하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길 잃은 양들을 우리 안으로
데려오려는 우리의 노력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아름다운 진리 가운데는 신체적인 감각보다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영원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많은 중요한 것들은 눈으로 보기보다는 느끼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린도후서 4:18)

사랑은 주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민, 우정, 오래 참음, 신앙은 영의 열매입니다.(갈라디아서 5:22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의 길에서 벗어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자 이러한 영의 느낌을 활용하십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태평양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많은 사람은 바울이 묘사한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물질적 필요보다는 영적인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이 지역에는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는가 하면, 인구 중 교회 회원의 비율이 높고 농업과 어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통가와

사모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인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 제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활동 회원 방문의 시급성

그러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 떠오릅니다. 저는 지역 칠십인으로 뉴질랜드의 한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도록 지명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전 세계의 칠십인에게 매우 강하고 힘찬 말씀을 전해 주신 후 몇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몬슨 회장은 복음의 의식에서 멀어진 회원들을 구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신 터였습니다.

몬슨 회장의 말씀과 그와 관련된 권고를 듣고 나니 복음에 온전히 전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심화: 브라이언 톨

성약과 구원의 의식으로 돌아오도록 권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는 스테이크 회장님들께 스테이크 대회 기간 동안 함께 저활동 회원을 방문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러한 방문은 언제나 훌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스테이크 대회가 열린던 어느 토요일, 저는 스테이크 회장님과 함께 몇몇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한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성전에서 인봉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저활동이었습니다. 부부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으며 함께 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문이 끝나갈 즈음, 저는 남편에게 축복을 원하는지, 또한 아내를 위해 남편이 직접 축복을 줄 수 있겠는지 물어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흔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가정에 손님으로 방문했을 때는 그러한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서는 안 되며 그 집의 가장이 모든 일을 결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받은 느낌대로 그분께 제안을 드렸고, 그 형제님은 제 제안을 고마워하셨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과 저는 그분께 축복을 드렸고, 그분은 감동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기 대신 우리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축복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내에게 한 번도 축복을 준 적이 없었고, 갑자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저희는 축복을 주는 방법을 설명한 뒤 형제님이 시작하고 마치는 것을 연습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아내에게 훌륭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가 축복을 마치자 우리 모두의 눈가는 젖어 있었고, 그 부부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저희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경험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받은 스테이크 회장님은 다음 날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신권 소유자들에게 대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에게 축복을 주도록 권고했습니다.

축복을 주라는 영의 속삭임

스테이크 대회 일요 모임이 끝나갈 즈음, 저는 또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배당 앞쪽에서 열 번째 줄쯤 앉아 있던 한 젊은 자매님에게 다가가서 축복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자매님이었지만 영의 속삭임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자매님은 제 말을 듣고 멈칫하더니 머뭇머뭇 “아니에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영의 인도를 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자매님이 앞으로 나오더니 지금이라도 축복을 부탁해도 되겠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고 자매님에게 스테이크 회장실에 가 있으면 곧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실로 가면서 저는

스테이크 회장님에게 그 자매님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자매님은 지난 10년간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10년 동안 복음 표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으며,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 그녀는 자신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으며, 다시 복음에 눈을 뜨긴 했지만 영적인 발전 면에서 너무 뒤처졌기 때문에 다시 영적인 것을 따라잡을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에 늦게 들어간
이들도 오랫동안 포도원에서
일한 이들과 똑같이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크 회장과 저는 포도원에 늦게 들어간 일꾼들이 포도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이들과 똑같은 보상을 받을 것이며, 잠시 포도원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그 자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마태복음 20:1~16 참조) 그런 다음 그녀에게 신권 축복을 주었습니다.

축복을 주는 동안, 저는 주님께서 자매님을 넘치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전에 없이 강력한 그 느낌 덕분에 저는 참으로 위대한 영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축복이 끝나자 자매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 아래로 마스카라가 번져 두 줄기 검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특별한 젊은 자매님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하는 과정에 막 들어섰음을 제게 알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길을 잃고 죄를 범할 때, 우리는 모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이생은 영이 육신을 이겨 내는 시간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라디아서 5:17)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영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모사이아서 3:19) 오늘날 세상에는 이처럼 육신의 소리에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육신이 영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 젊은 자매님은 영이 육신을 이겨 내도록 도와주는 옴은 길에 들어서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날 대회를 마치고 떠나면서, 저는 스테이크 회장님에게 대회 기간에 제가 만난 사람들의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복음의 길을 걷어가며 자신들이 맺은 약속을 기억하도록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 젊은 자매님은 꾸준히, 그리고 아주 빨리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갈라디아서 5:16, 25) 그녀는 계속 소식을 전해 왔고, 자신이 극복했고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엄청난 어려움들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저희 가족과 소중한 친구가 되었으며, 구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강한 정신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의식 봉사자로도 봉사했으며, 사랑과 선량함이라는 영적인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청년과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영이 육신을 이겨 낸 것입니다. 자매님은 마음이 순수해져서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모사이아서 5:2)

주님께서 그녀의 영혼의 고귀함과 고결함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그날 제가

받은 영의 느낌의 근원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속삭임을 통해 그녀의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은혜가 나타나는 모습을 목격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활동 형제 자매들을 도울 책임이 있으며, 그들을 축복할 방법에 대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동반하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길 잃은 양들을 무리 안으로 데려오려는 우리의 노력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사랑해 목자의 마음”, 찬송가, 144장; 또한 엘마서 26:4 참조) ■



2015년 한 해 동안, 스마트폰에서 재생된 외설물 동영상은 1,360억건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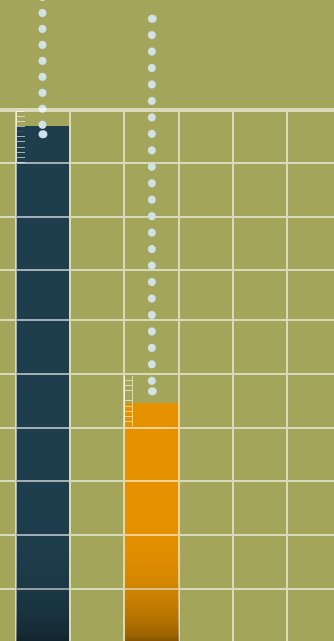


전체 인터넷 데이터의
30%가
외설물이다.

외설물은
97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다.

이에 비해, 북미, 유럽,
아시아의 상위 10개 스포츠
구단의 총 매출액은

458억 달러이다.



자녀들이 외설물을 거부하도록 돕는 여덟 가지 전략



리사 앤 톰슨

외 설물 관련 통계 자료를 보자면 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Extremetech.com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의 30퍼센트가 외설물로 추산된다.¹ 외설물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거대 소셜 미디어를 비롯하여 그야말로 수억 개의 웹사이트에 존재한다. 또한 텔레비전,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심지어 스마트폰에서도 외설물을 보게 된다.

외설물이 결혼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자주 발표하는 치료 전문가 질 시 매닝 박사는, “어린이는 무심코 보는 자료들로 부드럽고 연약한 뇌에 정신적 외상을 입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부모는 범람하는 외설물 속에서도 자녀들을 지키고, 그들이 외설물에 맞서 이를 거부하도록 준비시킬 힘이 있다.

다음은 교회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모가 가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여덟 가지 전략이다.

1. 접근을 통제하고 가족 규칙을 세운다

외적인 방어부터 시작한다. 브리검 영 대학교 가정생활학과의 제이슨 에스 캐롤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보호합니다.” 캐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뇌에서 쾌락 증추가 위치한 뇌간이 가장 먼저 발달한다고 한다. 전두 피질의 추론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발달하는 시기는 그 후라는 것이다. “즉, 어린이는 제동 장치는 없고 가속 페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캐롤 교수는 말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물리적인 차단과 감시가 필수적이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절차와 규칙이 있으면, 자녀들(어른들)이 의도치 않게 외설물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엇을 볼 것인가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 컴퓨터와 라우터, 인터넷을 사용할 때,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필터, 즉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케이블 방송과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 이용 시 자녀 보호 설정과 콘텐츠 제어 기능을 활성화한다.
- 모바일 기기의 콘텐츠 제한 기능을 설정한다.
- 컴퓨터와 태블릿 컴퓨터는 거실과 같이 잘 보이는 곳에 둔다.
- 어린 자녀와 십 대 자녀는 밤에는 전화기와 모바일 기기를 부모에게 맡기게 한다.

외설물을 접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 눈을 감는다.
- 기기를 끈다.
- 어른에게 말한다.
- 다른 것을 생각한다.

소셜 미디어는 외설물을 매우 활발하게 주고받는 장소가 되었다.

40개 국가 인터넷 사용자의 7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



10세 전후의 사춘기 직전부터이다. 외설물에 노출되는 시기는

- 부모는 어린 자녀의 문자메시지 및 소셜 미디어 계정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공개 원칙을 세운다.

자녀들이 의도하지 않게 외설물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1) 눈을 감고 해당 기기를 끈다. (2) 어른에게 말한다. (3)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린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된 일이 아니며, 꾸지람을 들을 문제도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2.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친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던 린다 에스 리브즈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필터[프로그램]는 ... 유용한 도구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필터이자 궁극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구주의 속죄 희생에 대한 깊고 변하지 않는 간증에서 비롯되는 우리 내면의 필터입니다.”²

자녀들이 이러한 내면의 필터를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리브즈 자매는 니파이의 권고를 언급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라.”(니파이후서 25:26)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한다. 가정 내의 종교는 “애정 어린 양육 방식”과 결합할 때 외설물을 막아 내는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연구 결과 확인되었다.³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에서 양육 방식에 관해 가르치며 United Families International[세계 가족 연합]의 이사를 맡고 있는 티모시 레릭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외설물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이자 치유책은 가정에서 진정성 있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입니다.”

3. 내면에서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음 표준을 통해 미디어를 선별할 구체적인 전략을 가르칠 수 있다. 매닝 박사는 신앙개조 13조는 어떤 미디어에든 최고의 필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앙개조 제13조] 이 후일에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자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찾은 것이 이 기준에서 어긋난다면 계속해서 더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러한 노력이 있기에 후기 성도가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원리와 지침에서 세상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일반 대중과는 구별될 것입니다. ... 부도덕하고 품격을 낮추며, 가정과



삶에서 영을 멀어지게 하는 대중 매체로 마음을 채우지 않기로 결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 보일 것입니다.”⁴

4. 건강한 성에 관해 가르친다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니파이후서 2:11)의 원리는 외설물에도 적용된다. 외설물을 나쁜 것이라고 규정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야 한다.

매닝 박사는 말한다. “청소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완충 및 보호 조치는 가정에서 일찍 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은 해로운 메시지는 넘쳐 나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극히 희박한 진공 상태에서 자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 가정생활학과 마크 에이치 버틀러 교수는 청소년들에게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인 우리는 성 반응 주기를[인간이 성적 자극을 받을 때 나타나는 생리 반응의 4단계 모형-웁긴 이] 갖고 태어납니다. 성적 욕망과 충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우리가 이성과 결혼,
그리고 가정생활을
향해 자연스럽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줍니다.”

건강한 성에 대한 토론은 자녀의 나이에 맞추어 이른 시기에 시작할 수 있다. 캐롤 교수는 적절한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구분하는 법과 개인의 사적인 부분, 그리고 신체 부위의 정확한 명칭 등은 어린 나이부터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자녀는 여덟 살 무렵이 되면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 맥락에서 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직접적인 언어를 선호한다. 한 청남은 이렇게 말했다. “모호하게 돌려 말하면 정말로 오해할 수 있어요. 저는 순결의 법에 대해서 여러 번 배우고서도 그것이 성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은 한참 뒤에 알았어요.”

캐롤 교수는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 상황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격식을 갖추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굳이 밖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거나 교회에 갈 복장을 하거나 성전 주차장 같은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에 대한 대화는 이런 환경에서만 할 수 있다고 자녀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질문이 생겼을 때,



lds.org/go/81722에서
어린이들이 외설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시청한다.



이런 자리를 다시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해 난감해질 것이다.

그 대신, 부모는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녀들이 질문이 생길 때마다 편하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캐롤 교수는 말한다. “침실이나 차 안에 앉아서, 또는 발에서 딸기를 따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면 자녀들도 언제든 다시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 부교수인 브래들리 알 월콕스는 말한다. “제 경험상, 성적으로는 가장 왕성한 십 대 청소년들이 보통 성에 대한 지식은 가장 부족한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성에 관해 많이 들은 청소년들은 보통 성적인 실험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5. 외설물에 대한 환상을 버린다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은 외설물의 참모습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것은 악랄합니다. 음탕하고 추잡합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습관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영락없이 파멸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만들어 낸 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그 희생자들을 빈곤으로 이끄는 저속하고 천박한 것입니다.”⁵

미국 소아과 학회는 이렇게 지적한다. “외설물을 보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종종 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대인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하여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된다. 그런 왜곡된 시각에는 지역 사회에서 성적인 행위가 공공연히 만연하고 있다는 과대 해석, 성적인 문란을 정상적인 것이라 여기는 믿음, 금욕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생각 등이 포함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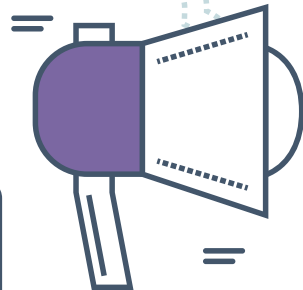
부모는 자녀들과 외설물에 관해 이야기할 때, 외설물에는 크고 작은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외설물에서 묘사되는 행위는 정상적이지 않으며, 건전한 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종류의 행위도 아니다. 캐롤 교수는 “외설물은 그것에 대한 환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매혹적”이라고 말한다.

외설물 문제가 생기면,
다음 방법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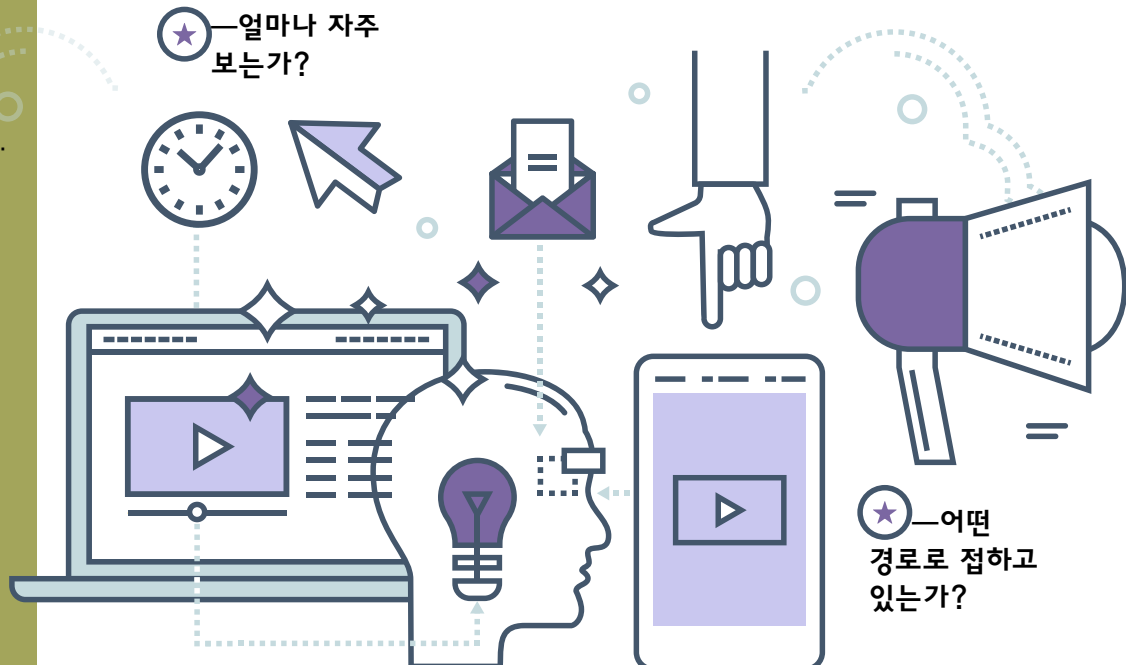


★ 외설물을
보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 얼마나 자주
보는가?



★ 어떤
경로로 접하고
있는가?





6. 문제에 대한 대화 방법을 바꾼다

전문가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외설물에 노출되면 바로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속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말한다. “[자의적으로] 외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 외설물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사실 외설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청남 청년들은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그리고 돕고자 하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⁷

캐롤 교수는 말한다. “청남 청년들은 호기심으로, 접하기가 쉬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외설물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춘기 동안 촉발되는 성 반응 주기의 힘을 경험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서적 또는 영적인 성숙함을 갖추기 훨씬 이전입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 교회사 교수이자 학생 클럽 ‘외설물 파헤치기’의 고문인 리처드 나이철펀 홀자펠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문제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를 너무 광범위하게 문제 삼으면, 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영혼을 더 괴롭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옥스 장로는 외설물에 빠져든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때때로, 또는 반복하여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정도가 있는가 하면, 심하게, 그리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용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 만일 외설물에 빠져드는 행동을 중독으로 부정확하게 규정짓게 되면, 당사자는 문제를 극복할 능력과 선택 의지를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한편, 문제의 깊이에 대해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즉 문제가 두려워할 만큼 심각하거나 뿌리 깊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 희망을 갖고 중단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 능력을 키워 줄 수 있습니다.”⁸

버틀러 교수는 부모들이 그 문제를 다룰 때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외설물을 보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얼마나 자주 보는가? 어떤 경로로 접하는가? 그런 다음 부모는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어느 정도의 조치가 적절할지 결정할 수 있다.

홀자펠 교수는 말한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십시오. 문제가 어느 정도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녀들이 편하게 질문할 수 있게 한다.

죄책감은

실수한 뒤에 느끼게 되는 자연적인 반응이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수치심은

절망감을 불러오는 파괴적인 감정이다.

심각합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외설물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더 깊은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까?”

7. 감정 조절을 가르친다

유타 주에서 전문 치료사로 활동 중인 네이션 어크리는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외설물 문제를 예방하는 핵심 요소일 수 있다고 말한다. 외설물은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넘어 어떤 감정, 특히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버틀러 교수는 말한다. “청소년들은 언제든 한 번은 심리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나, 또는 영적인 면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청소년 시기의 뇌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외설물을 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런 행동으로 생겨나는 기분 좋은 감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대체하거나 덮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위험한 것이다. “그런 기분이 좋아지는 행동은 차차 심리적 의존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존적 행동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죠.”

어크리 형제의 권고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은 모두 정상적인 것이며, 슬픔, 분노, 좌절, 상처

등의 부정적인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부모는 종종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통제하고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만, 자녀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대처하게 할 때 그들은 매우 중요한 정서적 능력을 체득하게 된다.

외설물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수치심을 주어서 자녀가 느끼는 정서적인 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브리검 영 대학교 가정생활학과 제임스 엠 하퍼 교수는 죄책감은 실수에 대하여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자연적인 반응이지만, 수치심은 절망감을 불러오는 파괴적인 감정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키우는 행동은 자녀가 긍정적인 감정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며, 외설물 사용을 방지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되는 영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능력 또한 저하시킨다.

외설물로 힘들어했던 한 청소년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뚜렷하게 기억한다. “엄마는 소리를 지르시며 강하게 반응하셨어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는커녕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아빠가 거둬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옥스 장로는 이렇게 당부한다. “그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악인이 아니며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⁹

8. 구주의 속죄를 통한 효과를 가르친다

청소년들은 말씀, 공과, 읽기 자료에서 외설물은 위험한 악이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얻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교리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버틀러 교수는 청소년기에 속죄에 대해 가르쳐야 할 가장 주된 이유는 청소년기의 뇌의 특성 때문이라고 믿는다. 버틀러 교수는 말한다. “청소년기의 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충동을 조절하거나 앞을 내다보며 사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뇌가 성숙하지 않은 십 대는 영적으로 진실하며 늘 노력하더라도 자신이 특히 취약한 부분과 직면할 때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며 무력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계명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속죄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속죄는 우리가 성장 과정을 인내하며 계속 발전해 가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옥스 장로는 말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 올바르게 온전한 회개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 축복과 모든 성약에 합당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¹⁰ 옥스 장로가 말한 “우리 모두”에는 외설물에 관련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희망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즉 외설물을 거부하도록 자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으며, 자녀들이 흔들리더라도 구주의 무한한 속죄가 있기에 변화와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레릭 교수는 말한다. “이 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부모 또한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사랑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에게 이보다 더 큰 희망은 없을 것이다. ■

“Arm Your Kids for the Battle[전쟁을 위해 자녀들을 무장시키십시오], *BYU Magazine, Spring 2015*에서 발췌함.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주

1. Sebastian Anthony, “Just How Big Are Porn Sites?” *ExtremeTech*, Apr. 4, 2012, extremetech.com.
2. 린다 에스 리브즈, “외설물로부터의 보호—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가정”,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6쪽.
3. Sam A. Hardy and others, “Adolescent Religiousness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Pornography Us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4 (May–June 2013), 131–39, sciencedirect.com 참조. 저자는 수석연구원과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4. 토마스 에스 몬슨, “본이 되고 빛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88쪽.
5. 고든 비 헝클리,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2쪽, 번역 수정.
6. “The Impact of Pornography on Children,” *American College of Pediatrics*, June 2016, acped.org.
7. 델린 에이치 옥스, “외설물의 뒷에서 벗어나기”, *리아호나*, 2015년 10월호, 52~53쪽.
8. 델린 에이치 옥스, “외설물의 뒷에서 벗어나기”, 52~53쪽, 번역 수정.
9. 델린 에이치 옥스, “외설물의 뒷에서 벗어나기”, 55쪽.
10. 델린 에이치 옥스, “외설물의 뒷에서 벗어나기”, 55쪽.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고결성을 시험받게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할 것을 선택한다면, 그 중요한 갈림길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정직, 신성한 표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정직은 영성의 핵심입니다.

우 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직과 진실의 완벽하고 완전하며 절대적인 표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처럼 완벽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해 힘써 노력합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을 특징짓는 요소입니다.(이사야 65:16 참조) 그러므로 정직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은사에서 핵심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4:6; 또한 요한복음 18:37; 교리와 성약 84:45; 93:36 참조)

주님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할 말을 믿느냐?”

야렛의 형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줄을 내가 아오니, 이는 주는 진리의 하나님이사라, 거짓말하실 수 없으심이니이다.”(이터서 3:11, 12)

또한,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의 영이니”(교리와 성약 93:26; 또한 24절 참조) “내가 너희에게 실상[진리]을 말하노[라.]”(요한복음 16:7; 또한 13절 참조)

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묘사됩니다. “이에 그가 사탄이 되었나니, 그러하도다,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비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4)



세상은 우리에게 진실과 정직은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된 개념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요한복음 8:44; 또한 교리와 성약 93:39 참조)

구주께서는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거둬 꾸짖으시고(마태복음 23:27 참조), 남을 기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24:15 참조) 이 극명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한쪽에는 거짓과 속임수, 위선과 어둠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진리와 빛, 정직과 고결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쪽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표준과 사회에서 말하는 표준에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지금은 둘 사이에 큰 골이 생기고 그 틈은 계속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

인류의 구주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7:14; 교리와 성약 49:5 참조] 우리 또한 그릇된 개념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실하여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¹

세상은 우리에게 진실과 정직은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농담 삼아 가벼운 거짓말을 하고, “악의 없는” 거짓말쯤은 관대하게 용서합니다. 또한 옳고 그름의 차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부정직이 초래하는 결과는 과소평가합니다.

항상 진리의 영인 성신을 동반하려면, 우리는 매 순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정직해질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영적인 힘을 동반하면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인생을 설계할 것인지와 같은 중대한 결정에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 또한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직하겠다는 결심

영적인 은사인 진리를 필요로 하고 그 은사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진리와 우리의 됴됨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빛과 영적인 응답, 그리고 하늘의 인도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할 때만 주어집니다. 정직하겠다는 결심이 굳어지고 또 굳어질 때, 삶에서 지속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로이 디 애킨의 이야기입니다.

“치과대학 1학년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자 우리 과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모두들 과 수석을 차지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경쟁이 과열되자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하여 성적을 높이려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무척 괴로웠다. ...

... 나는 절대 부정행위를 할 수 없었다. 치과의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나에게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다.

3학년 무렵, 곧 있을 한 중요한 과목의 시험지 복사본이 나에게까지 온 일이 있었다. 당연히 우리 반 학생들 일부는 시험 문제를 미리 보게 된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 복사본을 거절했다. 채점이 끝나고 시험지를 돌려받고 보니, 반 평균이 너무 높게 나온 나머지 내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였다. 교수님은 나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다.

‘로이, 보통 자네는 시험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아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나는 교수님께 이렇게 답했다. ‘교수님, 다음 시험 때 예전에 출제했던 시험 문제를 똑같이 내지 않으시면 저는 시험을 아주 잘 볼 겁니다.’ 교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 과목의 다음 시험이 돌아왔다. 시험지를 받아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교수님이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는 문제를 내신 것이다. 채점 결과, 나는 우리 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때부터 시험에서는 매번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었다.”²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므로 내면에 정직이라는 신성한 표준이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베냐민 왕의 훈계는(모사이야서 3:19) 정직과 진실에 대한 의식을 높이려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씩어져 가는 ...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 뒤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에베소서 4:22~25; 또한 골로새서 3:9; 제3니파이 30:2 참조)

저는 정직에 대한 다음 정의가 마음에 듭니다. “정직이란 빈틈없이 진실하고 올바르며 공정해지는 것이다.” 또한 고결성이란, “도덕적 용기를 발휘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 지식에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³

제일회장단 제2보좌이셨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님은 사관 후보 학교에 지원했던 일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급 심사를 위해] 사문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자격 요건은 별로 갖추지 못했지만, 저는 2년 동안 대학을 다녔고, 남미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문위원회 장교들로부터 저에게 쏟아진 질문들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거의 모두가 저의 믿음에 관해서만 질문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가?’, ‘술을 마시는가?’,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가?’, ‘장교가 기도해야 한다고 믿는가?’ 이런 질문을

한 장교는 매우 완고하고 간간한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주 기도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 저는 정말로 장교가 되고 싶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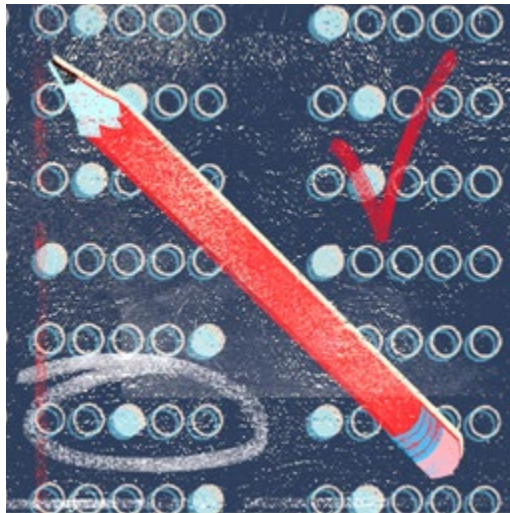
그러나 얼버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으며 위대한 장군들이 그랬듯이 장교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

더욱 흥미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전시에도 도덕적인 규율은 완화되지 않아야 하는가? 전투의 중압감 때문에 평시에 집에

있을 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은가?’

... 제게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제가 배운 표준대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제 나름대로의 믿음은 있지만 남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사 시절 순결의 법을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덕에 이중 잣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문위원회에서 나오면서 저는 이 완고한 장교들이 ... 틀림없이 제게 매우 낮은 점수를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점수가 공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장교 후보 학교에 맨 처음으로 입소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작은 결정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달으셨던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 중 한 곳에 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⁴

정직, 고결, 진실은 필멸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판가름하는 영원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정직은 영성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십시오

정직은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지만, 몇 가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무렵, 지금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시지만 당시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이셨던 델린 에이치 옥스 총장님이 칼 지 매저의 다음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명예를 건 맹세가 무엇을 뜻하는지 질문을 받아 왔습니다. 답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땅속부터 까마득한 높이로 올라 쌓은 두꺼운 돌벽 너머 감옥에 저를 가두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그곳을 빠져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감옥 바닥에 세워 놓고 제 둘레에 분필로 원을 그리고 나서, 그 원을 넘지 않겠다고 명예를 걸고 맹세하게 해 보십시오. 제가 그 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⁵

때로 우리는 그저 약속을 이행하기로 합의했기에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맺었던 약속을 외면하고픈 상황이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통해 얻게 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약속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계속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맙니다. 약속을 하거나 서명을 할 때는 개인의 정직과 고결성을 이유로 말과 약속, 합의에 대해 의무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직 ... 을 믿”고(신앙개조 제13조) 진실을 말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논문을 표절하거나 서로 속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니, 이에 더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태초부터 거짓말하는 자인 저 사악한 자의 영이니라.”(교리와 성약 93:24~25)

시련은 주로 “더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 이 사소한 유혹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정직함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책상에는 당시 선지자셨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이 자주 인용하시던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투는 영혼의 고요한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⁶

우리가 정직과 관련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정직의 결과가 불리하게 보이더라도 끝까지 진실하고 정직하다면 위대한 영적 권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그런 결정의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고결성을

시험받게 됩니다.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할 것을 선택한다면, 이 중요한 갈림길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⁷ 이 말은, 우리가 부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둠 속에서도 의로운” 사람이 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구주께서 택하실 길을 선택하십시오.

시인 에드가 에이 게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벽장 깊숙이

나에 대한 수많은 비밀을 숨겨 놓고
절대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고 믿는
바보가 되고 싶지는 않네⁸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감히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과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25)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하고, 직업을 찾아야 하고, 친구를 찾아야 하고,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고, 졸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압박감 때문에 정직이라는 성품에 금이 가게 하지 마십시오. 설령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해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더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간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더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빈틈없이 정직하기 위해 더 굳게 결심하고자 영을 고양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십시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직과 성실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⁹ 주님의 선지자가 주신 이 권고의 말씀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십시오.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진리의 요구에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¹⁰ 자신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6:24)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직의 완벽하고 완전하며 절대적인 표본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가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들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분을 따릅시다. ■

2011년 9월 13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전한 “Honesty, The Heart of Spirituality[정직...영성의 핵심]”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66, 67쪽.
2. Roy D. Atkin, “I Wouldn’t Cheat,” *New Era*, Oct. 2006, 22~23.
3.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소책자, 2009), 61쪽.
4. 제임스 이 파우스트, “정직—도덕 나침반”,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42~44쪽, 번역 일부 수정.
5. Alma P. Burton, *Karl G. Maeser: Mormon Educator* (1953), 71; Dallin H. Oaks, “Be Honest in All Behavior”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Jan. 30, 1973), 4 참조, speeches.byu.edu.
6. James L. Gordon, *The Young Man and His Problems* (1911), 130 참조.
7. Brigham Young’s Office Journal, Jan. 28, 1857.
8. Edgar A. Guest, “Myself,” *The Best Loved Poems of the American People*(1936), 91.
9. 토마스 에스 몬슨, “헤어지며”,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114쪽.
10. 델린 에이치 옥스, “진리와 관용 사이에 균형 맞추기”, *리아호나*, 2013년 2월호, 33쪽.

이러한 삶의 압박감 때문에 정직이라는 성품에 금이 가게 하지 마십시오. 설령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해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온 영혼을 위해 배우다

저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청소년과 청년 성인을 위해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여러분과 이 시대에 관하여 강한 영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마치 전 세계의 초등학교 어린이가 제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인 면과 현세적인 면에서 깊이 있는 배움을 얻도록 기회를 주실 것이며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당신이 돌아오실 때를 대비해 이 땅을 준비할 위대한 군대로서 그들을 양육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어린이들이며, 지금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위대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성장하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기회가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 막중한 과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신 구속하고 강화하는 권능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깊이 있게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당신께 더 깊이 개종하도록 끊임없이 문을 열어 주시고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여 당신의 왕국과 백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인 여러분은 그 위대한 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적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바라시는 대로 여러분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권능을 통해 친히 행동하십니다.



필멸의 삶과 영원한 삶에서 잠재력을 이루기 위해 학습과 배움은 필수적이다.

기술 덕분에 배움과 교육의 기회가 넘쳐 납니다. 현세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 면에서 모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바라시는 대로 여러분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권능을 통해 친히 행동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이 시작될 무렵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에게 주신 계명의 일부라는 사실이 교리와 성약에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 역사에 대한, 그리고 나라들에 대한, 그리고 왕국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교리와 성약 93:53)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심에 따라, 이 계명은 우리 시대에 절박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앞에 놓인 풍부한 교육 기회의 이점을 활용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배움과 성장의 잠재력을 키워 나갈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다음 말씀을 매일 상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육을 추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¹

“공부하고 배울 때 여러분의 재능은 커질 것입니다.”²

“여러분[은] 각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지식을 구하여 여러분에게 내재된 거룩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십시오.”³

깊이 있는 배움

저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잠재력을 온전히 발현”하는 발판이 되어 줄 배움을 깊이 있는 배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깊이 있는 배움이란, 온 영혼, 즉 머리와 가슴, 육신과 불멸의 영에 대해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있는 배움은 영적이고 현세적인 모든 종류의 지식에 적용됩니다. 깊이 있는 배움이 이루어질 때, 다음 세 가지를 위한 힘이 생깁니다. (1) 알고 이해한다. (2) 효과적이고 의로운 행동을 한다. (3)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아간다.⁴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에게 가르치셨듯이, 깊이 있는 배움은 그리스도의 빛 안에 깃든 계시와 영감을 통해, 성신의 권능에 의하여, 서로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가르침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재한 가운데 주님의 방식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는 어떤 종류의 지식 습득에든지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주님께서는 깊이 있는 배움에 대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그러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는 … 너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이요.”(교리와 성약 88:78)

영적인 지식이 우선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지 깊이 있는 배움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경험이며, 그러한 배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근간으로 하여 성신을 통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깊이 있는 배움은 쉽지 않으나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깊이 있게 배우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이 배움을 향해 열려 있다면, 그리고 그 소망대로 실천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최선을 다하는 등 우리가 우리의 몫을 한다면 성신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또한, 성신은 우리가

배운 바를 실천할 역량을 키워 줄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구원 그 자체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 지식은 영원한 진보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입니다.”⁵

이 과정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식을

얻고자 하든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식은 우리 마음과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영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지식을 얻은 후에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식을 얻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결국 그 결과 더 큰 세력을 갖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악한 힘에 의해 포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지식을 주는 계시가 필요합니다.”⁶

복음이 모든 진리를 아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⁷ 모든 깊이 있는 배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명백하고 간결한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머리와 가슴에서 영적인 지식을 가장 중시한다면, 배움을 얻을 때 분명 주님과 성신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부하는 모든 것을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평생 멈추지 않고 깊이 있는 배움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통한 깊이 있는 배움

영적 및 현세적으로 깊이 있는 배움을 통해 지식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배우기를 그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1970년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하고서 배우기를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살아 있는 선지자와 경전, 성신으로부터

배움은 주님의 방식을 통해, 즉 계시와 영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가르침이나 계시도 새로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기술, 건강 관리, 국제 문제, 정부 규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는 발전상 또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회개하면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발전도 전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의 총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제 아내는 이따금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자매님은 어떻게 클라크 총장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아내는 보통 이런 말로 답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남편은 클라크 총장이 아니셨답니다.” 꾸준히 배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나이는 먹되 대학을 졸업할 당시 아내가 알았던 그 스물다섯 살짜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나 가족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지식, 영향력, 효용성, 신앙에 한계가 생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가는 데도 제약이 따릅니다.

청소년 및 청년 성인에게 경험한 배움은 평생 가는 배움의 기초가 됩니다. 영을 통하여, 그리고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학습을 통하여 주님의 방식으로 깊이 있는 배움을 얻는 역량을 기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얻는 열쇠는 배움을 향해 머리와 가슴을 열어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항상 배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해 주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1. 깊이 있는 배움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미 깊이 있는 배움을 얻겠다는 소망이 있는 상태라면,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그 은사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배우고자 하도록 우리의 소망을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에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영을 통해, 그리고 부지런한 연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2. 회개를 삶의 구심점으로 삼으십시오.

회개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를 구속하고 강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회개가 삶의 구심점이 될 때, 우리는 항상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주님께 봉사할지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최대한 자주 성전에서 예배하십시오.

성전은 계시와 배움이 있는 주님의 집입니다. 질문과 배우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자주 성전에 간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깊이 있는 배움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 극복하기

여러분은 깊이 있는 배움을 얻을 때



주님의 권능을 통해,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한 기술의 발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평생 배울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배움을 얻는 데는 장애물도 있고, 노골적인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낙담, 게으름, 읽는 어려움, 지원이나 기회의 부족, 문화나 가족의 전통, 비용에 대한 걱정, 세상의 유혹, 교육에 대한 그릇된 생각 등 그 외 많은 것들이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⁸

이런 몇몇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극복할 수 없는 장벽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랑과 전능하신 힘으로 이 모든 장애에 맞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영생을 향해 진보하는 데 방해가 될 법한 모든 것을 속죄 희생을 통해 경험하고 극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배움을 얻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그분의 힘과 권능 안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참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교리와 성약 88:63; 또한 마태복음 7:7 참조)

결론

지금은 하나님 왕국에서 참으로 위대한 시대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일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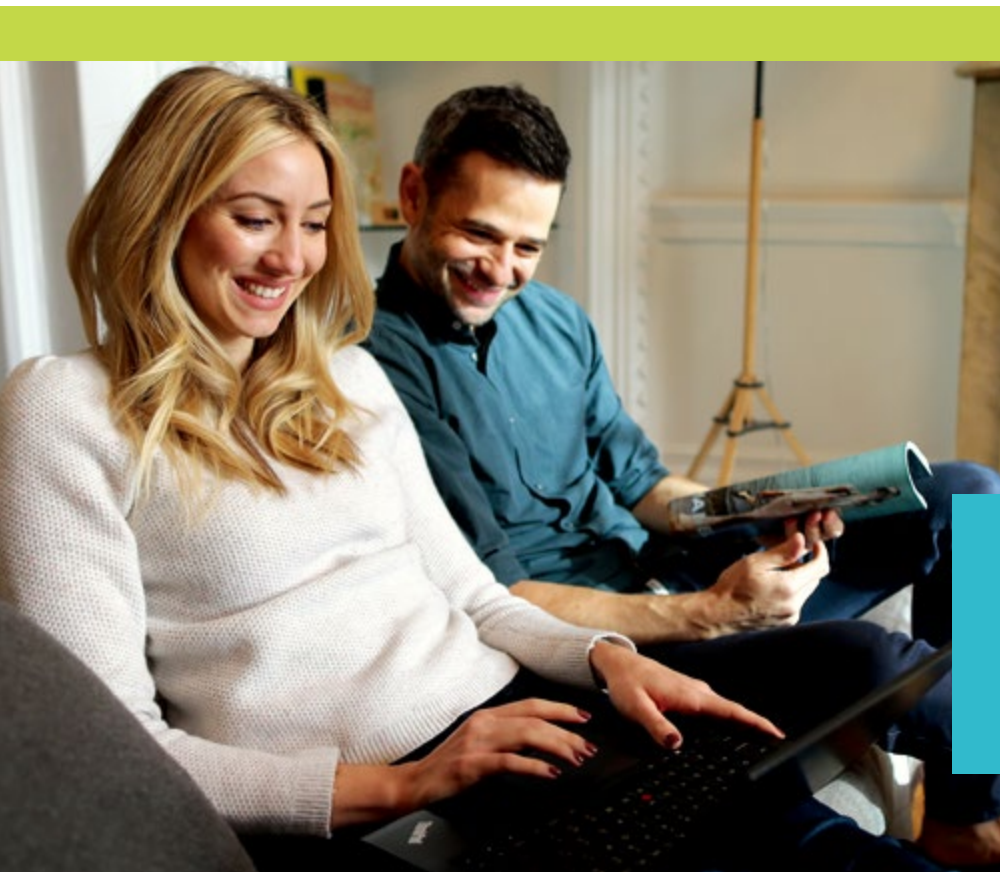
친히 움직이시는 동안, 우리는 거듭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준비시켜 주시고자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행하는 가운데 깊이 있는 배움을 얻을 기회를 온전히 활용하고, 지식과 이해가 자라며, 그분의 의로운 목적을 성취하고, 지상에 온 목적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

교회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기회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보려면 education.lds.org를 방문한다.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리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본 잡지 50쪽을 참조한다. 청년 성인을 위한 종교 교육원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본 잡지 44쪽과 46쪽을 참조한다.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16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19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상호부조회라는 강한 힘”,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95쪽.
4. “배우고 행하고 된다” 방식은 지도력 개발을 위한 틀을 만들거나 주님께서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대해 토론할 때 널리 사용되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배우고 행하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됨”,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60~68쪽; 맬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할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43쪽 참조. 이 방식의 각 요소에 대해 더 깊이 다루어진 내용을 보려면, 총 세 권으로 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다음 저서를 참조한다. *Increase in Learning(2011); Act in Doctrine(2012); Power to Become(2014)*.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314쪽.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65, 266쪽.
7. 이 개념은 브리검 영 회장의 말에서 잘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사람들을 하나님에 관한 일들에 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내에서 도덕적인 미덕과 순수함을 발전시킵니다. 또 이것은 그들이 지식과 예지, 메카니즘의 모든 부분, 또는 예술과 과학을 증진시키도록 모든 가능한 격려와 동기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지혜 및 모든 예술과 과학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것들은 그분의 백성들의 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193)
8. 다음은 문화적 전통에서 비롯된, 청년 성인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그릇된 생각의 예이다. 선진국에서는 한 세대 전만 해도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공부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면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사실 선진국은 물론 개발 도상국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그런 시대는 끝이 났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전문 기술 분야에서 자격증을 따거나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것을 비롯해(분야에 따라 더 높은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인기가 많은 분야에서 고교 졸업 이후에 계속하여 교육과 학습을 지속하는 것은 가족을 부양하고,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현세적인 기초를 쌓는 데 꼭 필요한 일이 되었다.



우리가 깊이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을 통해 친히 움직이시는 동안, 우리는 거듭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 BYU-패스웨이

김 비 클라크 장로

우 리 시대에 주님께서는 더 깊이 있는 배움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하기 위해 그분의 교회의 권능을 통해 친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마도 교회가 깊이 있는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는 2017년에 교회 교육 기구(CES) 안에서 전 세계 BYU-패스웨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조직이 발표된 것일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조직은 패스웨이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패스웨이

2009년에 교회 교육 위원회는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에 일임하여 패스웨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학업 프로그램을 조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회의 더 많은 회원들에게 전문대 이상의 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학기 프로그램인 패스웨이는 학생들이 온라인 과정을 수강한 뒤 매주 종교 교육원이나 집회소에 모여서 종교 교육을 받는 동시에 온라인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에 대한 학생 중심 토론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 준비를 갖추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현지 신권 지도자가 이끌고, 학생들의 멘토로서 학생들을 지원할 교회 봉사 선교사가 감리합니다. 패스웨이 프로그램의 세 가지 주된 목적은

- (1) 복음이 학생들의 마음에 뿌리내리도록 돕는 것, (2) 학생들이 더 적극적이고 유능한 학습자가 되도록 돕는 것, (3) 학생들이 가정을 이끌고 부양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패스웨이는 현재 전 세계에 약 500여 개의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57,00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패스웨이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기회와 장을 열어 주었고, 구주 안에서의 소망과 신앙을 길러 주었으며, 배움에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많은 학생들은 고등 교육 기관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BYU 아이다호 캠퍼스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격증 또는 학위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전 세계 BYU-패스웨이

패스웨이 프로그램의 성장과 성공으로 인해, 교회 교육 기구는 산하 모든 교육 기관에 연계된 새로운 조직인 전 세계 BYU-패스웨이(BYU-PW)를 창설했습니다. BYU-PW는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다른 모든 교회 교육 기구의 온라인 고등 교육 자격증 및 학위 프로그램과 연동됩니다. 이 조직은 온라인 코스를 통해 학생들을 돕고, 학생 중심 학업 토론과 워크샵 및 지역 직업 훈련 서비스를 포함한 전 세계 패스웨이 사이트의 활동을 수집하는 일을 관리합니다.



BYU-PW는 2015년 11월 교회 교육 위원회에서 승인된 다음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교회 교육 기구는 교회가 조직된 곳이라면 어디든 교회 회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 세계 BYU-패스웨이는 온라인 자격증 및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여러분에게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열어 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종교 교육원에서 종교 교육을 받고 주님의 방법으로 영을 통해 배움으로써, 여러분은 어디에서 공부를 하든 더 깊이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업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 기구와 자립 서비스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인턴십과 직장 또는 지역 교육 기회들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패스웨이, 영어 언어 지침, 자격증, 학위 등을 포함하는 전 세계 BYU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지역 교회 단위 조직과 지도자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교회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주님의 지시하에 계속하여 새로운 패스웨이 사이트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입니다. ■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pathway.lds.org 를 방문하십시오.(영어로만 제공됨)





신앙의 초상

니키는 고전 미술을 공부하는 덕에 벌써 여러 차례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에 왔었다. 현재 로마에서 공부하는 니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미술을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코디 벨, 사진작가

니키 코빙턴

이탈리아 라치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간증이나 느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식으로 자신이 지닌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는가? 우리 가족은 이 질문을 계기로 각자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재능을 활용하여 구주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을 것인지를 배워 가기 시작했다.

나는 미술의 뿌리를 공부하면서 그 신성한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모든 아름다움과 미덕과 진리를 만들어 낸 분이시다. 모든 아름다움의 시작점은 그분이다. 이 점은 예술가인 나에게 놀라운 발견이었다. 부디 내가 내 손으로 이룰 수 있는 재능으로써 내 자녀와 다른 이들에게 이 사실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니키의 신앙 여정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lds.org/go/81739를 방문한다.

lds.org/go/817art에서 전 세계 회원 작가들이 그린 마음을 고양하는 미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내가 태어난 나이지리아는 영어를 쓰는 나라이다. 그래서 나는 베냉 코토누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고서 프랑스어를 쓰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자 긴장이 됐다. 어떻게 복음을 가르친단 말인가? 예상대로, 가나의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동안 나는 정말 힘겹게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았다.

선교사 훈련원을 나와 첫 번째 지역에 가니, 지부에서는 프랑스어로 간증을 해 달라고 했다! 모두 조용히 앉아 있는 가운데 나는 천천히 연단으로 올라가서 미리 써 둔 짧은 간증문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종이 없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때 앞에 있는 아름다운 얼굴들을 보자 눈물이 났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표현할 길이 없었다. 나는

유일하게 아는 프랑스어로 말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서 모임이 끝날 때까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정말로 프랑스어를 말하고 싶다고, 도와주신다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말이다.

석 달 뒤, 미국에서 오신 새 장년 선교사 부부가 지부를 방문하셨다. 그분들도 간증을 부탁받으셨다. 연단으로 올라가신 자매님이 프랑스어로 몇 마디를 말씀하시더니, 더 말을 잊지 못하셨다. 자매님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예배당은 조용했다. 나는 자매님께 다가가서 통역을 해 드려도 될지 여쭙어 보았다.

“그럼요, 장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매님이 말씀하셨다. 자매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는 동안 나는 영을 느꼈다.

그리고 한 마디 한 마디 자매님의 간증을 프랑스어로 옮겼다.

모임이 끝난 뒤 지부 회장님의 아내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장로님이 처음 지부에 오셔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이 장로님의 혀를 움직이셨네요.”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이해하심을 나는 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자 곁에 계시며, 우리가 노력할 때 그 노력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덕분에 나는 프랑스어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고, 내 삶은 축복받았다. ■

도널드슨 이지커, 미국 유타 주

어떻게 불어로 복음을 가르친단 말인가?



그림: 김민서

나는 성찬이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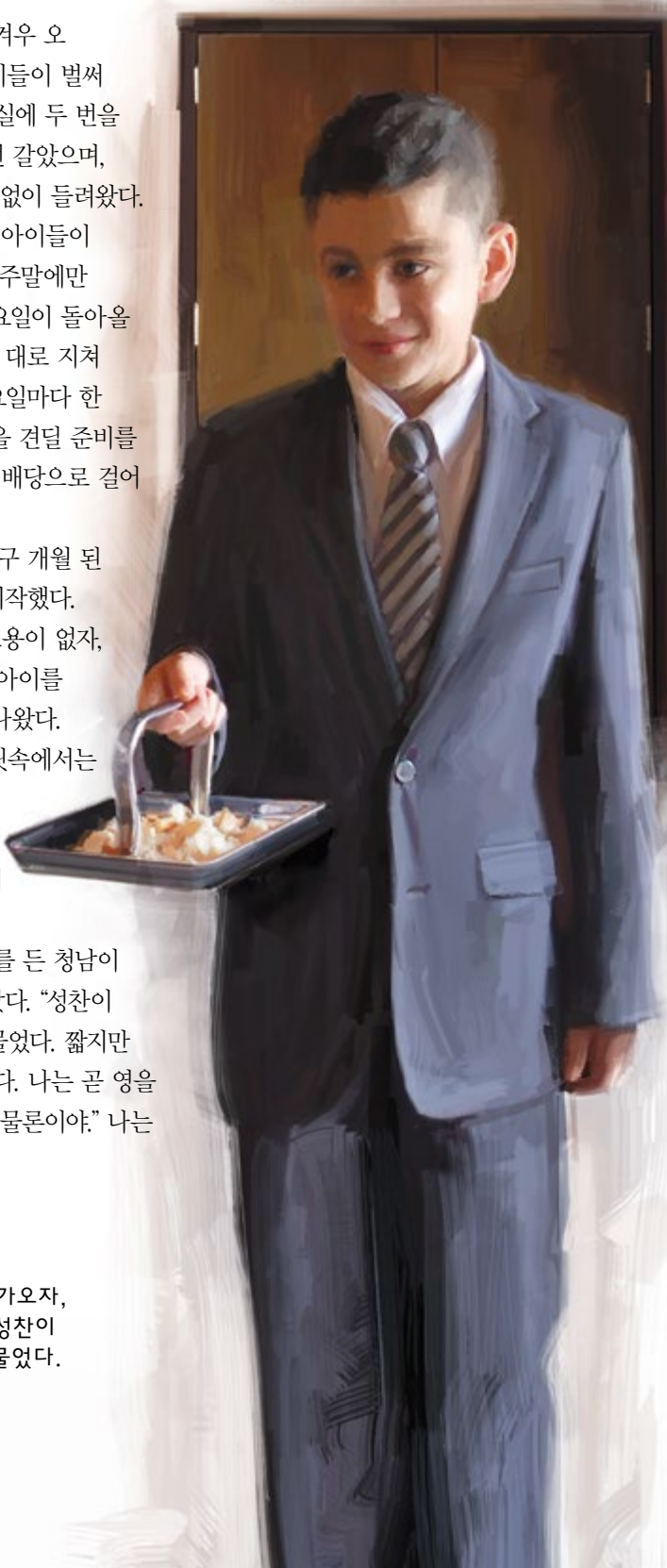
성찬식이 시작된 지 겨우 오 분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벌써 칭얼거리고 있었다. 화장실에 두 번을 다녀왔고, 기저귀를 한 번 갈았으며, “배고파요!” 소리는 수도 없이 들려왔다.

여덟 살이 채 안 되는 아이들이 다섯이나 되는데 남편은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는지라, 일요일이 돌아올 무렵이면 나는 보통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우리 부부는 일요일마다 한 시간 동안의 “오래 참음”을 견딜 준비를 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가곤 했다.

모임 시작 십오 분째, 구 개월 된 막내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자, 결국 나는 두 손을 들고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바깥으로 나왔다. 바깥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지친 몸으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정말 막막했다.

그런데 갑자기 성찬기를 든 청남이 다가오자, 나는 멈칫 놀랐다. “성찬이 필요하신가요?” 청남이 물었다. 짧지만 마음을 흔드는 질문이었다. 나는 곧 영을 느꼈고, 눈물이 나왔다. “물론이야.” 나는

성찬기를 든 청남이 다가오자, 나는 멈칫 놀랐다. “성찬이 필요하신가요?” 청남이 물었다.



생각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해야 할 일과 책임질 일들로 고된 한 주를 보내지만, 성찬을 취하며 기운을 되찾을 수 있다. 성찬을 취하자 마음이 안정되고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성찬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을 이겨 내려면 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현관에 걸린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구주께서 활짝 손을 내밀고 계신 그림이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치유하고 복돋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감사로 부풀어 올랐다. 나는 일요일마다 성찬을 취하면서 이 사실을 되새긴다. 삶이 힘겹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그 청남이 던진 짧은 질문을 통해 영은 내게 가르쳐 주었다. 구주께서는 힘과 평안의 근원이심을 말이다. ■
줄리 아처, 미국 유타 주

삽화: 조슈아 데니스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고 계셨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원이 되었다. 나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훈련된 사람이라, 감지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던 나는 사실상 무신론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가 왔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어릴 때 배웠던

주기도문을 외워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어떻게든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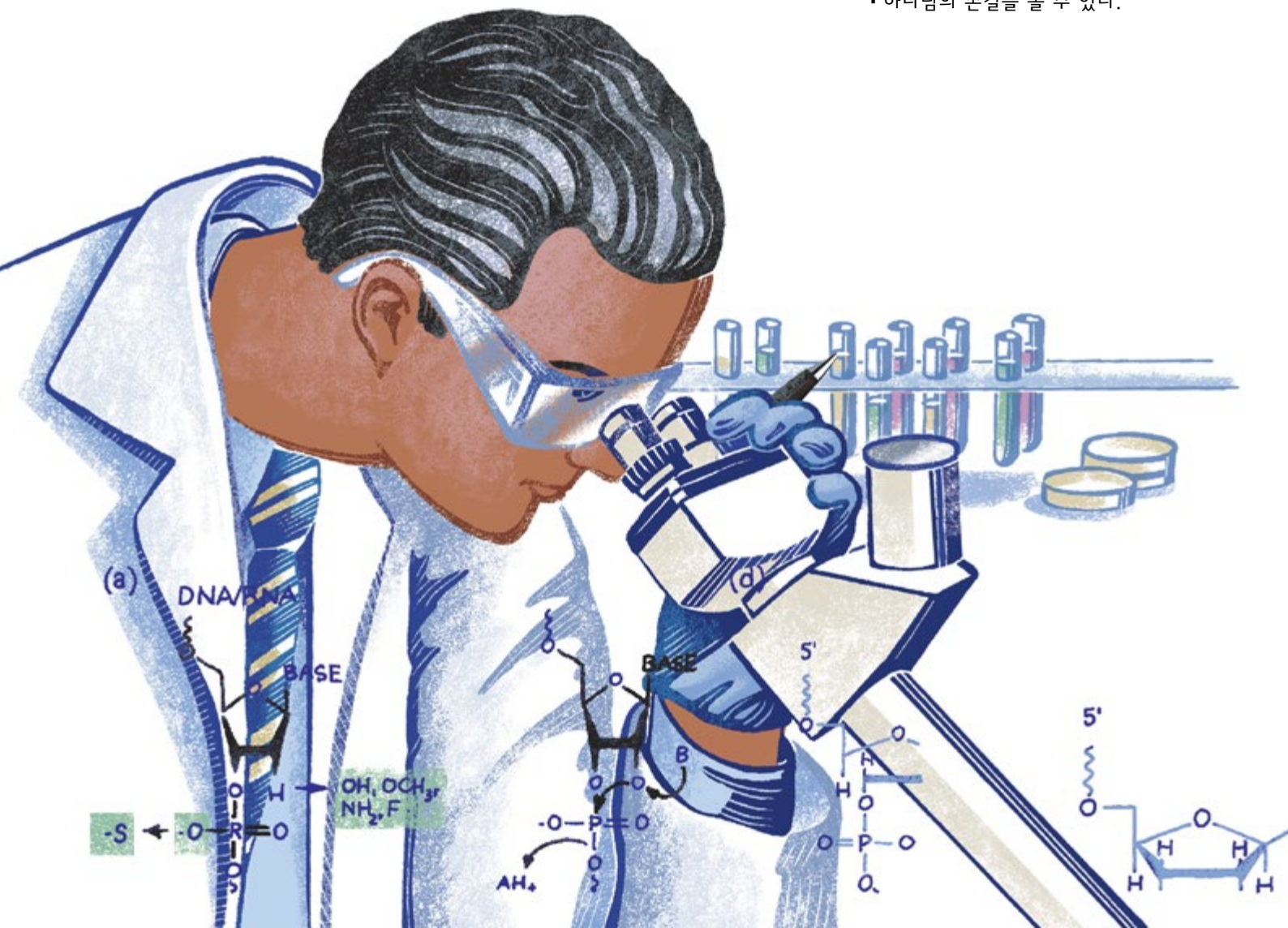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었지만, 위기가 지나가고 아들이 회복되자 나는 다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갔다.

몇 년 뒤, 나는 루비라는 여성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루비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었는데, 활동적으로 교회에 가지는 않았다. 루비는 나를 만난 지 3년이 될 무렵부터 교회에 가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나는 번번이 거절했다.

하루는 선교사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선교사들은 물문경을 건네며 읽기 과제를 주고 갔다. 그들이 말한 부분을 읽었지만 별 느낌이 들지

나는 이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언니가 가져다준 많은 기적

않았다. 교회에도 갔지만 나는 항상 회의적이었다. 그러면서도 물문경은 계속 읽어야 할 것 같았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고 계셨다.

그리고 꾸준히 물문경을 읽자, 이 책이 참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내 신앙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제3니파이 13장 9~13절에 이르러 주기도문이 나왔고, 나는 내 온 몸을 감싸는 큰 영을 느꼈다. 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나를 부르고 계셨다. 이번에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은 커졌고, 나는 더 알고 싶었다. 표준 경전을 모두 다 읽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꾸준히 교회에 갔으며, 루비와 결혼한 뒤에 침례를 받았다.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을 때 느낀 그 기쁨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지금도 연구원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엘마의 말에 동의한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나타내나니, 참으로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또한 그것의 움직임과 또한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행성도, 지고하신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하느니라.”(엘마서 30:44) ■

세르지오 아이 알바 에스트라다,
멕시코 멕시코시티

우 리 가족은 크리스티나 언니 덕분에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 언니는 선천적으로 심각한 심장 결함이 있었다. 의사들은 신생아인 언니를 살펴보더니, 얼마 못 가 사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힘없이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고서 그저 주님을 믿었다. 언니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다.

여러 해가 지나, 언니는 건강하고 영리하며 명랑하고 어여쁜 소녀가 되었다. 그러나 열두 살이 되어서 인공판막 이식 수술을 해야 했다. 우리는 언니가 수술을 버텨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됐지만, 언니는 씩씩하고 용감하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은 잘 끝났고, 언니는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언니는 항상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언니는 너무도 활동적이어서 가까운 친구들도 언니에게 지병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언니는 열여섯 살 때 뇌졸중에서 회복한 뒤 세미나리에서 가르치는 것을 돕도록 부탁을 받았다. 성구를 외우고 물문경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을 북돋워 주었다. 언니는 피아노를 쳤으며, 노래하기도 좋아했다. 와드 대회를 위해 육십 명의 합창단을 지휘해 달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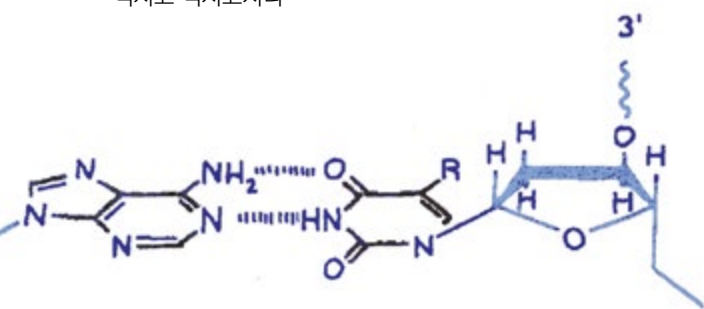
부탁을 받았을 때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스물두 살 때는 한 청년과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을 했고, 결혼 직후에는 와드 청년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런데 스물여섯 살이 되자 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언니는 상파울루로 가서 검사를 받았다. 병원에서는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언니는 수술 도중에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그 탓에 뇌에 손상이 갔다. 여러 달이 지나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모여서 언니가 나아지도록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금식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이튿날, 언니는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바란 건 언니의 죽음이 아니었지만, 그 또한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았다. 언니는 이제 더 아파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조차도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었다. 우리 가족은 인봉되었기에 다시 언니와 함께할 수 있음을 안다. ■

지스라이니 바티스타 피레스 스크라바,
브라질 파라나



종교 교육원은 어떤 곳입니까?

웨인 엘 데이비스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십 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청년 성인들을 향하여 “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 세대”가 될 것을 독려하시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로 종교 교육원에 등록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벨라드 장로님은 그렇게 할 때 선교 사업과 영원한 결혼, 그리고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더 잘 준비될 수 있으며, 영으로부터 영감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힘이 더 커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¹

그러나 교회의 종교 교육원은 어떤 곳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줄지 확신이 안 가신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 질문에 제가 답해 보겠습니다.

누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청소년은 세미나리에 참석합니다. 그다음 과정은 무엇일까요? 일부 학생들은 교과 일정에 종교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 대학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업과 더불어 영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부분 학업과 영적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청년 성인은 많지 않습니다.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은 보통 대학교 근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앞이나 현지 교회 건물 내에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내에서 종교 교육원 수업을 가르치는 것을 허가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종교 교육원에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꼭 대학교 학생일 필요도 없습니다.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 성인이라면, 기혼과 미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 종교 교육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Institute.lds.org에서 가까운 종교 교육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종교 교육원에 참석해야 합니까?

미국 아이다호 주 모스코우의 한 대학 근처에서 단 57명으로 시작된 종교 교육원은 현재 전 세계에 250,000명의 학생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삶에서 넘치는 힘과 축복을 경험합니다. 최근 한 설문을 통해서 10개국의 종교 교육원 학생들에게 종교 교육원이 삶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왜 그들이 종교 교육원에 가며, 종교 교육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답해 주었습니다. 수천 명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종교 교육원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강화된다. (2) 영적으로 발전한다. (3)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확신을

**우정, 영적인 보호,
복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연는다.

대학, 선교 사업, 직장, 친구, 배우자 등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중대한 결정이 수반되는 문제들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결정이 운명을 좌우합니다.”² 분명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성신의 도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성한 인도와 도움은 우리가 영과 경전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종교 교육원이나 교회 학교의 종교 수업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할 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로라는 종교 교육원의 혜택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로라는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고, 전만큼 간증이 강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라는 종교 교육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InstituteForMe.Ids.org에서 로라를 비롯한 여러 학생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 때, 즉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또는 딸임을 알 때, 우리는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미나리 및 여러 교회 활동에서 배운 기초 위에 종교 교육원이 더해진다면,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는 것은 삶의 매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를 굳건하게 해 줄 것이며,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속하여 그분과 같이 되어 가도록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종교 교육원은 매년 수십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주

1.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위대한 청년 성인 세대”,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68, 69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리아호나*, 2015년 1월호, 5쪽.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종교 교육원에는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네 개로 이루어진 코너스톤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음 과정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을 배우며, 우리 삶에서 그분이 하시는 역할을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 영원한 가족에서는 성별과 영원한 정체성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가족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 행사하기, 성전 예배의 질 높이기 등의 주제를 탐구합니다.
- 회복의 기초에서는 교회 역사의 교리적 기초 및 역사적 맥락과 함께 교회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 사이의 연관성을 배웁니다.
- 물문경의 가르침과 교리에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위해 쓰인 이 책의 핵심 교리 주제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종교 교육원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리아 웰커
교회 잡지

우리는 할 일이 많다. 우리 중에는 학생도 있고, 직장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는 이도 있다. 친구나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무거운 책임을 맡은 이도 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삶에 적응해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진로를 정하지 못한 이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제쳐 두고 종교 교육원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일일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종교 교육원이 정말 도움이 될지 한 번쯤 궁금해한다.

답은 그렇다이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청년 성인 가운데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놓인 많은 이들이 종교 교육원에서 힘과 지지, 우정과 영적인 양식을 얻는다. 다음은 온갖 난관 속에서도 종교 교육원은 자신들을 위한 장소임을 염두에 두었던 훌륭한 두 청년 성인의 이야기이다.

마음에 이로운 종교 교육원

에릭의 이야기, 온타리오 토론토
에릭(오른쪽 위)은 토론토 대학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심장 조직과 재생 의학을 연구하고 있다.

에릭은 자신이 공부하는 분야를 이렇게 설명한다. “특정 유형의 줄기세포는 신체의 어떤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줄기세포를 페트리 접시 안에 넣고 심장 세포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 이 세포는 스스로 박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여 다양한 질병을 표본화하고 여러 가지 약물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제 목표는 언젠가 이런 환경이 갖춰진 실험실에서 심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에릭은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에서 봉사하는 동안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영에 귀 기울이고 영을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저는 공부하는 법과 배운 것으로 제게

**교회의 종교
교육원은 우리
삶에 어떤 축복을
가져다주는가?**

적용하는 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에릭은 집에 돌아오는 것이 걱정스러울 만큼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에릭은 말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때 종교 교육원에 가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릭은 종교 교육원에서 맺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저는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릭은 종교 교육원에는 다닐 만큼 다녔다며 농담을 하면서도, 빠짐없이 종교 교육원에 참석한다. “종교 교육원에 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영을 느낍니다. 종교 교육원이 있어서 저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장소에 머무를 수 있으며, 제 할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에릭은 자신이 하는 일과 종교 교육원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한다. “세포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 세포 내부에서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의도하는 긍정적인 변화나 신호를 더 쉽게 받아들일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변화한 세포는 원래의 상태보다 더 좋고 큰 무언가가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스로 올바른 환경에 놓이고자 한다면, 저는 삶의 이러한 영적인 측면들은 더 받아들일게 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덜 받아들일게 될 것입니다.”



에릭은 이렇게 결론짓는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느낍니다. 살아오면서 언제나 그분의 사랑을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내린 결정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존재하시고, 제가 가장 좋은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종교 교육원

베로니카의 이야기, 스페인 마드리드

베로니카(아래)는 열일곱 살 때, 품 안에서 쌍둥이 언니를 떠나 보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삼 년이 흘러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던 베로니카는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 보려고 산책을 시작했다.

종교 교육원에 관하여 지도자들이 알아 둘 사항

교회 대학 또는 종교 교육원을 졸업하지 않은 모든 청년 독신 성인은 종교 교육원에 등록하여 졸업하도록 권고받아야 한다.

현지 지도자들은 함께 효과적으로 계획하여 종교 교육원에 참석할 청년 독신 성인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권고한다.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신권 지도자들을 보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신권 지도자가 계획을 주관한다.
- 청년 성인들에게 **개인적으로 권고**한다.
- 지도자는 **책임 시스템**을 활용하여 권고한 내용을 보고한다.

베로니카는 항상 하나님을 믿었기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왜 제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요?”

순간 베로니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늘 지나다니던 후기 성도 교회의 건물이었다. 건물을 제대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베로니카는 안으로 들어가서 두 명의 자매 선교사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며칠 뒤 그들은 베로니카를 가르쳤다.

베로니카는 첫 번째 토론이 끝났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일어서서 선교사들한테 말했어요. ‘다들 정상이 아니군요.’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와 버렸죠.” 베로니카는 교회의 가르침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국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나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니라. 이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베로니카는 정말로 자신은 그 기회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복음 때문에 집도 잃고 직장도 잃었지만, 베로니카는 침례를 받았다. 생활은 끊임없이 어려워지곤 했지만, 베로니카는 주님을 믿었다. “교회를 알기 전에는 집세를 낼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울어 버리거나 화를 냈어요. 하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걸 알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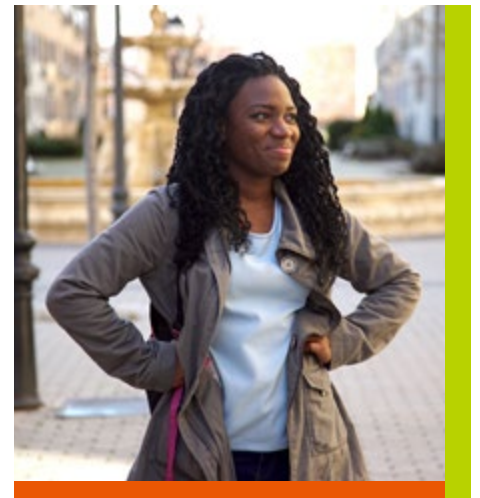
베로니카가 받은 축복사의 축복에는 그녀가 선교 사업을 하리라는 구절이 있었다. 하지만 베로니카는 치마 한 벌 없었고, 치마를 살 방법도 없었다. 한 칠십인 부부가 그 지역을 지나다가 베로니카의 상황을 듣게 되었다. 칠십인의 아내는 여행 전에 여벌 치마를 가져가야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가져온 치마 중 여러 벌을 베로니카에게 주었다. 그 자매는 베로니카에게 종교

교육원에 참석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베로니카의 감독이 그 지역에서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그때부터 베로니카는 꼬박꼬박 종교 교육원에 참석했다.

종교 교육원은 베로니카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종교 교육원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주중에 정말 많은 일을 하다가 일요일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지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무엇을 하나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종교 교육원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종교 교육원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종교 교육원이라는 방편으로 제가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고 베로니카는 정말로 선교사로 봉사했다. 2016년 10월, 그녀는 칠레 오소르노 선교부로 출발했다.

베로니카는 말한다. “그분 덕분에 제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꼭 맞는 계획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비록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게 하시나요?’라고 물을 때도 있지만,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청년 성인을 종교 교육원에 초대하기: 성공 일화

모 든 청년 성인을 종교 교육원에 초대하는 것은 교회의 목표 중 하나이다. 스테이크에 따라 이 일에 여러 지도자가 참여할 수 있다.

- 종교 교육원 코디네이터
- 스테이크 회장단 및 감독
- 종교 교육원 교사
- 청년 독신 성인 대표
- 학생들

뉴질랜드의 한 작은 마을의 스테이크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의 어려움을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해 종교 교육원 수업을 개설하는 놀라운 예를 보여 주었다.

나루아와히아 와드의 샘 히긴스 감독은 와드의 청년 성인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뉴질랜드 해밀턴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회장단 제2보좌인 바비 해먼 회장이 종교 교육원을 제안하여, 그 지역의 종교 교육원 코디네이터인 조너선 워윅과 이야기를 나눴다.

워윅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30~45분 떨어진 해밀턴까지 와서 종교 교육원 수업에 참석하도록 더 많이 광고하고 학생들 개개인과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모두들 나루아와히아에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편안해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장년 선교사 부부의 도움을 받아 나루아와히아에 종교 교육원 수업이 개설되었다. 학생은 2명에서 40명으로 불어났다.

워윅 형제는 말한다. “나루아와히아에서 열리는 종교 교육원 수업은 기도에 대한 기적 같은 응답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해결책을 주시고자 열망하시며, 자녀들이 끊임없이 복음으로 개종하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느끼도록 도와주십니다.”

ids.org/go/81747에서 이 성공 사례에 대한 이 지역 지도자들의 의견을 더 찾아볼 수 있으며, 각 스테이크의 청년 성인들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참조할 수 있다.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면, 주님은 이렇게 답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건 이런 까닭에서란다. 이제 그만 자려무나.’ 저도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게 되려고 이제껏 그 모든 일을 겪어야 했던 것 같아요.” ■

종교 교육원은 나를 위한 것이다 —동영상 이야기

ids.org/go/81749에서 에릭과 베로니카를 비롯한 다른 청년 성인들의 이야기를 시청한다.



종교 교육원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를 사귀고, 영을 느끼며, 신앙이 강해질

것입니다.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여 열심히 경전을 공부할 때, 유혹을 피하고 모든 일에서 성신의 인도를 받는 힘이 커지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President Thomas S. Monson, Apr. 21, 2009, si.lds.org

세미나리: 연결 고리를 맺는 곳

세미나리는 여러 면에서 연결과 교류의 장이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과 고난을 이해하려 할 때나 경전을 이해하려 할 때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 느낌에서 벗어날 한 가지 방법은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세미나리를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세미나리에서 만들 수 있는 연결 고리들을 알아보자.

다른 사람과의 연결 고리

세미나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분명히 일깨워 준다. 또한, 세미나리는 안전하고 든든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훌륭한 장이 된다.

매일 만나서 수업을 하든지, 가정 학습 또는 온라인 수업을 하든지, 세미나리는 다른 청소년만이 아니라 교사와도 여러분을 연결해 준다.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다. 경전을 탐구하고, 질문하며, 답을 찾고, 생각과 느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함께 웃고, 울고, 노래할 수 있으며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교사에게 문의할 것,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음)

경전과의 연결 고리

경전은 오랜 옛날 아주 먼 곳에서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세미나리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경전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세상과 오늘날 세상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세상에 한결같은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세미나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경전과 영을 통해 우리에게 알맞은 지침을 주신다는 것과, 경전이 평생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 꾸준한 위로와 조언, 도움을 준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중인 청소년들. 경전 포니, 기도하는 장면 사진, 심화: 메이스 코넬리



경전과 경전 간의 연결 고리

엘마서와 마태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사야와 교리와 성약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우리는 세미나리를 하면서 경전 곳곳의 복음 가르침들을 한데 묶는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다. 일단 이런 연결 고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경전은 유용하고 흥미진진해지며 친근하고 익숙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경전과 경전 사이에서 더 많은 연결 고리를 흥미롭게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세미나리는 그렇게 하도록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연결 고리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는 그저 상상해 본 정도의 사이일 것이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면 좋을 것이다. 세미나리를 하면 미래의 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 가령, 미래에 선교사가 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도록 어떤 식으로 경전을 활용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미래에 부모가 된 내가 어떤 식으로 자녀들의 가슴에 경전에 대한 사랑을 심어 줄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는 미래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가르치고 영감을 주려 할 때 경전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미래의 내가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습관 속에서 어떤 식으로 개인적인 기쁨과 평안, 영감을 얻게 될지도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나와 연결 고리

'진정한 나'는 나의 일부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왔으며 하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를 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고, 현재 어떤 능력이 있으며,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어떤 놀라운 힘을 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세미나리를 통해 경전에 담긴 교리에 숙달하고 그 교리의 참됨을 성신이 가슴에 확증해 주는 것을 느낄 때, 이러한 지식에는 깊이가 더해진다. 또한, 성신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 즉 진정한 나와 연결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배우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속삭여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결 고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분과 구주께 배우며, 그분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결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다질 수 있다. 세미나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경전과 성신을 매개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배우며, 진지하게 경전을 공부한다면 그 지식은 우리 것이 된다. 또한, 세미나리에서는 기도하고, 상고하고,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 다른 연결 고리를 만들 기회를 자주 얻게 된다.

다음 청소년들은 어떻게 연결 고리를 만들었는지 살펴보자.

말로우



세미나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미나리에 참석하면서 제가 누구이고 왜 이곳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세미나리에서 배운 원리와 교리 덕분에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도 했고요. 저는 이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더 굳어졌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것을 생각하니 정말 신이 나요.

말로우 티, 20세, 필리핀 소르소곤

저는 자라면서 그동안 한 번도 교회에서 활동적이지 못했어요. 확실한 간증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세미나리에 참석하면서 기도를 통해 위안과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경전 이야기에 공감도 깊어요. 세미나리를 하기 전에는 스스로 경전을 단 한 장도 읽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미나리에 등록한 덕분에 기본이 되는 복음 원리를 배웠어요. 저는 항상 세미나리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세미나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아요. 이 확신을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브린 더블유, 17세, 미국 아이다호 주



브린

몇 년 동안 세미나리를 하면서 제가 어디서 왔고, 왜 여기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또한 저는 세미나리를 통해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경전 구절을 제게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업 때마다 경전에 나온 내용들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경전 이야기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제 삶 또한 경전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선지자들이 바로 저를 위해 지침과 권고를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옳은 길을 찾고 옳은 결정을 내리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 브이, 18세, 러시아 모스크바



매년 세미나리를 할 때마다 저는 표준 경전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원하시는 일을 이루겠다는 소망은 더 커졌어요. 그 덕분에 저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복음을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마련하신 세미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저는 아버지께서 딸로서 제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제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미리안 시, 18세, 과테말라 과테말라

미리안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우울 및 불안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상태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간증이 약해지고 있었던 저를 조금이라도 이끌어 준 유일한 곳은 세미나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몇몇 청년은 금세 저와 가장 친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경전은 저에게 울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리 교사님은 그토록 오랜 옛날 신약전서에 기록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 십 대들의 삶과 관련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간증은 천천히 회복되었고, 나이가 더 강하고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병과 싸우는 일은 계속되었지만, 사라졌던 희망이 세미나리 덕분에 강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다가간다면 우리 짐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세미나리가 아니었다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이리 디, 16세, 미국 콜로라도 주

제이리



세미나리에 참석하던 첫해에는 왜 경전을 공부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전은 그저 지루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리 덕분에, 경전 이야기 하나하나에는 값진 교훈이 담겨 있고, 그 이야기들을 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오스카르 비, 15세, 코스타리카 리몬

오스카르



저는 2016년 5월에 침례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저의 첫 세미나리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미나리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일찍 일어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영의 음성을 확실히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지만, 세미나리에 참석하면서 그 음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을 통해 경전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은 제가 의미가 담긴 경전 구절에 표시할 수 있게 속삭여 주며, 거기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경전은 제가 방향을 잃을 때 길을 인도해 주고, 저를 가르쳐 줍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 언제든 경전을 펼치면 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셀비 엘, 16세, 미국 몬태나 주

셀비



나는 어떻게 성전 사업을 돕는가?

성전 사업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준다.

메건 암네치

너 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며 가슴 설렌 적이 있는가? 아마도 형제자매와 함께 좋아하는 운동 팀의 경기를 보러 가거나, 가까운 친구가 멋진 연주회에 초대해 주었을 때 그런 설레는 마음을 느껴 보았을 것이다.

1840년대, 하나님ی 복음 진리를 회복하시자 조셉 스미스는 매우 행복하고



설했다. 그는 침례받지 못하고 이생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합당한 신권 권세를 통해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교리가 특히 그에게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형 앨빈이 침례를 받지 못한 채 25세의 나이로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조셉은 형이 이생을 사는 동안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원한 고통에 처할까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한 구원에 관한 계시들을 통해, 조셉은 앨빈이 대리 의식을 통해 침례를 받고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교리와 성약 137편 참조)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이 소식은 스미스 가족뿐 아니라, 일리노이 주 나부에 있던 다른 성도들에게도 흥분되는 일이었다. 1840년 8월 15일, 조셉 스미스는 시모어 브런슨의 장례식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한 침례 의식에 관해 가르쳤다. 그리고 고대의 성도들이 행했던 이 의식들을 수행하고 회복시켜야 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했다.(고린도전서 15:29 참조)¹

나부의 성도들은 사망한 가족들을 위해 대신 침례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듣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1807~1898)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영혼은 떨 듯이 기뻐했다”고 말했다.²

성도들은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능한 한

신속히 가족들을 위해 이 일을 마치고 싶었다. 많은 이들이 돌아가신 친척들의 이름을 모으기 위해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미시시피 강으로 내려가 의식을 행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우리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과 침례에 관한 설렘과 기쁨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 사업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열어 준다. 이 얼마나 훌륭한 선물인가!

우리도 나부의 성도들처럼 친구와 가족과 함께 모여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가족을 성전에 데려갈 수 있다. 즉, 살아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고인이 된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성전에 데려갈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 가족이 성전에 갈 수 없다면, 대신 친구, 지도자, 또는 정원회나 반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해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이들과 성전에 가면 기쁨이 찾아온다. 그럴 때 가족이 연결되고 평화가 찾아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자녀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설레고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주

- 1. Matthew McBride, "Letters on Baptism for the Dead," May 29, 2013, history.lds.org 참조.
- 2. Wilford Woodruff, *Deseret News*, May 27, 1857, 91.



가족을 하나로

“각 와드 청소년들이 성전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침례를 받고 또 가족이나 와드

회원들과 협력하여 의식을 행하기 위해 친족의 이름을 제출한다면 청소년들과 교회는 크나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 우리의 친족들을 결합시키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축복은 거의 이해하지 못할 만큼 큰 것입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부리와 가지”,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7쪽.



살렛 라카발
교회 잡지

가족 기도가 계명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니파이인들을 향해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하셨다.(제3니파이 18:21) 그때부터 선지자와 사도들은 이 가르침을 되풀이했다. 예를 들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1928-2015)는 “가족 기도를 일상생활에서 우선시하는 일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가르쳤다.¹

가족 기도는 중요하다! 가족 기도는 가족이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워지도록 돕는 열쇠이기도 하다. 가족 기도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여러분은 가족 기도 챔피언이 될 수 있다.

가족 기도 챔피언 되기

가족 기도의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챔피언이라 하면, 어떤 것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떠오를 것이다. 가장 높은 상을 차지하거나 경쟁에서 1위를 한 우승자를 우리는 챔피언이라고 한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챔피언이 있다. 옹호자 또는 수호자와 같이 무언가를 지키고 고수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도 챔피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가족 기도의 챔피언이란 가족 기도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고 지키며 옹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기도로 가족의 발전을
돕는 것에 관해
청소년들이 들려주는
열 가지 조언.

가족 기도 챔피언

다음은 가족 기도의 챔피언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이다.

1. 기도할 차례가 돌아오면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지넬 에스, 14세, 미국 아이다호 주*

2.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서맨사 비, 17세, 미국 앨라배마 주*

3. 저희 가족은 언제나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만 하기보다는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려고 노력하며,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카를라 에스, 17세, 멕시코 티후아나*

4. 모든 사람에게 늘 가족 기도를 해야 함을 상기시켜 주세요.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면, 개인 기도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카밀 지, 18세, 미국 앨라배마 주*

5. 여러분이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몇 분 더 일찍 일어나세요. 가족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알람을 설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테스 제트, 16세, 미국 텍사스 주*

6.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머릿속으로 그 말을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 기도에서 어떤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는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동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이해하고 싶어요. *그레이스 엠, 14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7. 좋은 태도로 가족 기도에 임하세요. 가족 기도를 잠들기 전에 해야 할 무언가로 여기지 마세요. 가족 기도를 할 때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노아 에이치, 17세, 미국 앨라배마 주*

8. 가족 기도를 하도록 모든 형제자매를 돕고자 노력하세요.

좋은 태도와 좋은 모범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윌 더블유, 14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9.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리릭 에이, 13세, 미국 아칸소 주*

10. 가족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족과 함께하고, 경전을 읽고 기도하는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잭 에스, 14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주
1. 리차드 지 스코트, "신앙을 행사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93쪽.



"함께 기도드리는 가족의 모습보다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광경은 없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스 회장, "기도와 신앙으로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3월호, 3쪽.



충실 ↔ 하겠다는 ↔ 결심

여러분께 매우 유익할 네 가지
결심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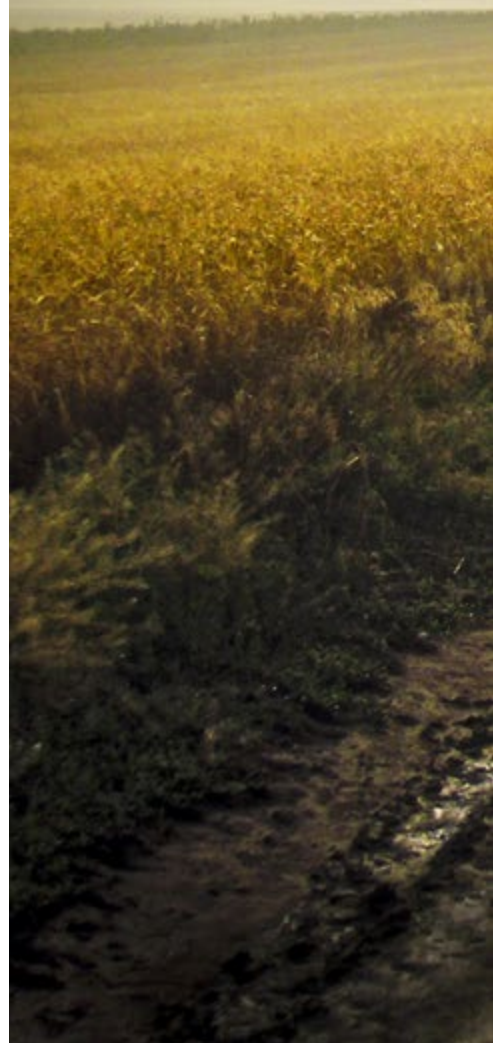
과 테말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제가 직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가난이었습니다. 저희는 복음을 알지 못했기에 영적으로 가난했고, 돈이 부족했기에 현세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다섯 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홀로 네 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이 모두 함께 일하기를 바라셨기에 가사의 일부를 자녀인 저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장남인 저는 날마다 점심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저는 몇 가지 요리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제게 25센트씩 식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7센트로 콩 500g을 사고, 6센트로 쌀 500g을 샀습니다. 그런 다음, 요리에 쓸 숯에 5센트, 불쏘시개에 2센트, 토르티야(옥수수로 만든 전병)에 5센트를 쓰곤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일을 했으며, 가족들은 날마다 밥과 콩에 토르티야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당시에 25센트가 그리 많은 돈은 아니었으나,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끝없는 가난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저마다 자신을 위해 결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믿겠다는 것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주할 때면, 때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좋은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바탕으로 결심했을 때, 저는 삶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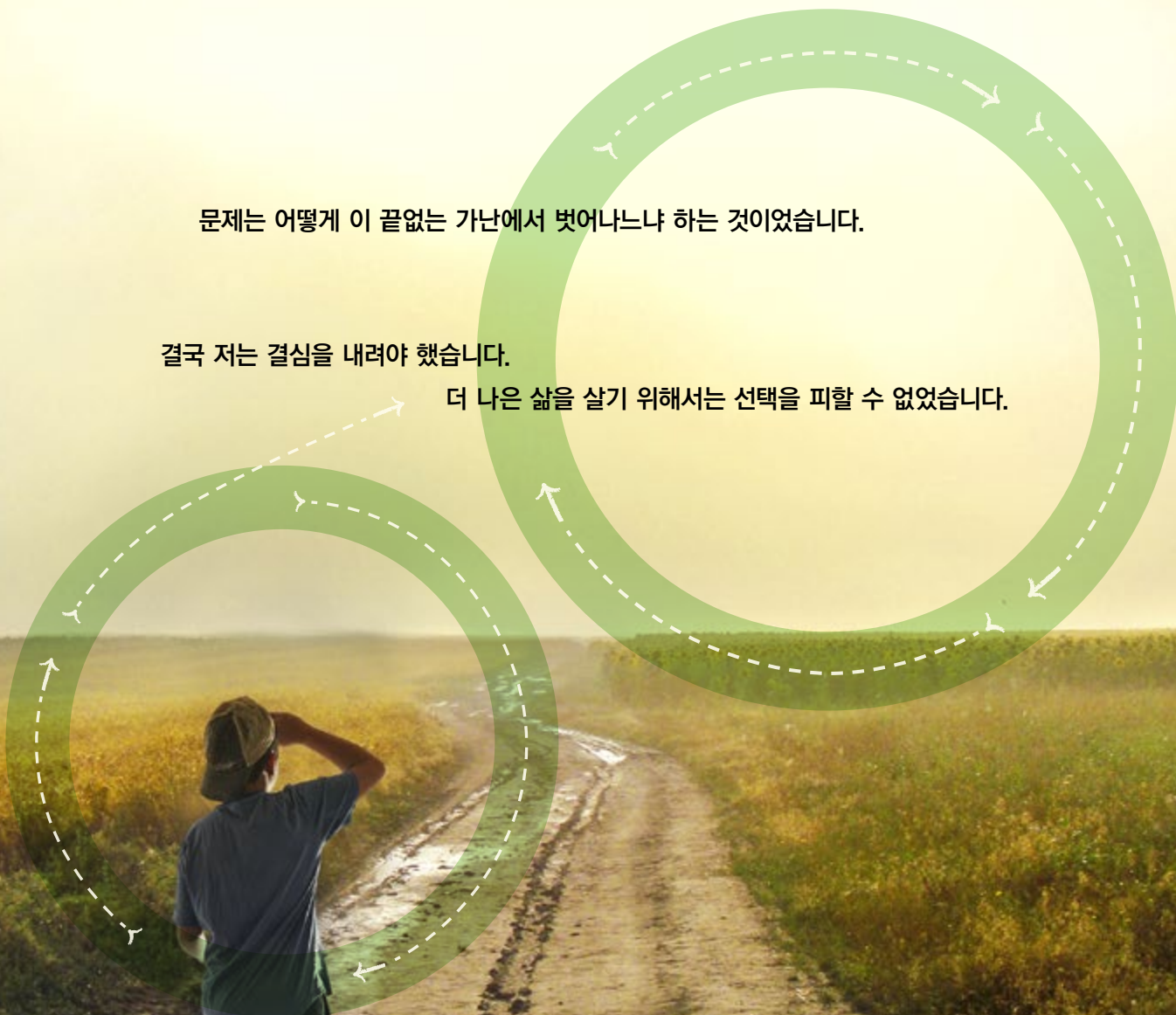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칠십인 정원회



문제는 어떻게 이 끝없는 가난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친 네 가지 결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고수한다면, 여러분께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1) 침례받겠다는 결심, (2)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계속 활발히 활동하겠다는 결심, (3)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겠다는 결심, (4) 끝까지 충실하고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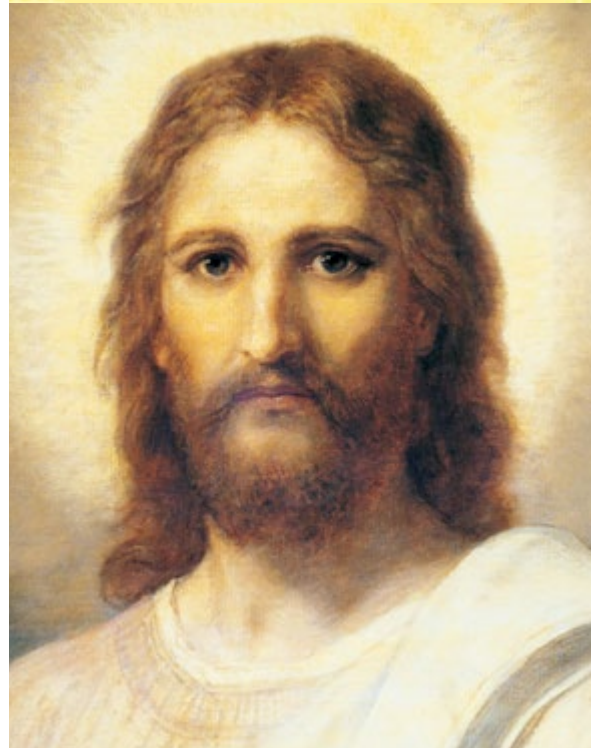
→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계속 활발히 활동하겠다는 결심

침례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예배당에 앉아서 바로 이 약속을 하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자리에 앉아 그리스도의 교리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 기쁨을 느꼈고, 그 기쁨을 통해 저는 선교사들에게서 배운 모든 것이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성신에게서 오는 그런 기쁨을 계속 누릴 수만 있다면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생 활동적인 회원으로 교회에 다니겠다고 그분께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에는 매주 교회에 참석하겠다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교리, 경전, 살아 있는 선지자, 그리고 특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 침례받겠다는 결심

제가 12살 때, 선교사들은 저와 제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참여하지 않으시고 커튼으로 가려진 뒷방에 앉아 듣기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다가 남녀가 올바른 권세로 결혼하여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교회 소책자를 읽게 되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말이 아버지의 관심을 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배우시고 침례를 결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모두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복음에서 얻게 된 새로운 관점을 통해, 스스로 적용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인생에서 더 나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길에 머무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겠다는 결심

저는 인생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겠다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덕분에 그때부터 저는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의심이나 의문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 약속을 다시 떠올렸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인생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표준에 근거하여 일찍이 결정을 내린다면, 의심이나 의문이 생길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이 원리와 관련하여 잊지 못할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배움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항상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또, 그런 직업을 구하려면 학업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학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저는 일요일에는 공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으로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날 할 일에 관하여 목적 있는

결정을 내리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한 후에도, 때로는 제가 만든 규칙을 깨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했을 때 그러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공부를 할 뿐인데 나쁠 건 없잖아. 아침에 교회에 갔다가 오후와 저녁에는 공부할 수 있지.”

그렇지만 교회에서 계속 활발히 활동하고 주님의 선지자가 주신 권고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떠올리자, 일요일에 공부를 하지 않고 봉사와 예배로 주님의 날을 보내겠다는 결심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저는 이미 충실하겠다고 결심한 상태였기에, 단순히 주님이 안식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고, 그분의 권고를 제 생활에 최선을 다해 적용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학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직업을 얻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제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저는 압니다.

→ 끝까지 충실하고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결심

주님께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경전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고,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믿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계시가 존재하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복음에 충실하게 머무르기가 수월해집니다.

이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면, 어떤 행동이나 활동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두고 절대 고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경전, 영,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인 선지자를 통해 신앙으로 답을 구할 때, 이 모든 염려가 해소될 것입니다. ■





개인의 가치

꽃이 피어나는 모양과 시기는 모두 다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인의 용기로 대응하는 방법

이 생의 큰 시험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의심받고 비난받을 때 [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주먹을 치켜들고”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대응한다면,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처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따르도록 권유하게 됩니다.

참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을 개인의 옹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두어야 합니다. 질문과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기회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거나 신학적 논쟁에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간증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은 오직 사랑과 온유함으로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내 앞에서 순결함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그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옛날의 나다나엘과 같음이라.”(교리와 성약 41:11)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어린이와 같이 순결하며 화는 더디 내고 용서는 빨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께 저의 답을 드립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의 인종, 신념, 종교, 또는 정치적 당파가 무엇이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용기를 보이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더 나은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길은 침례의 문으로, 의롭게 생활하는 험착하고 좁은 길로,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끕니다. 그분은 “길ियो 진리요 생명”입니다.(요한복음 14:6)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 즉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모범이 되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용기로 대응함으로써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과 저, 즉 후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2008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았습니까?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판단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도록 말이지요. 여러분이 구주의 사랑을 느낀다면, 상황을 다루기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사만타 엘, 18세, 멕시코 치와와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외롭고 겁이 나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안아 주며, 혹은 미소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돕게 될 것입니다.

얀드리 피, 17세, 멕시코 치와와

“적절치 않은 언어를 사용하고 과도하게 비디오 게임을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민감한 주제이다. 남에게 설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모범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이 표준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적절치 않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늘 건전한 농담과 이야기를 하는 등 깨끗한 언어만 사용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적절치 않은 언어를 쓰지 않고도 재미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훌륭한 모범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친구들은 보통 여러분의 선택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선택을 존중해 줄 것이다. 좋은 친구들은 여러분이 그들과 다른 것을 선택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여러분을 존중해 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데도 친구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친구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때때로, 친구들은 그들이 하는 특정한 행동을 여러분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도 친구가 그만두지 않는다면, 친절하고 정중하게 그만해 달라고 부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여러분은 옳은 일을 선택함으로써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친구들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활동을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기꺼이 옳은 일을 선택한다면,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친구들을 강화해 주세요
저는 상호향상 모임에서 언어에 관한 공과를 가르쳤어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친한 친구 한 명에게는 말이죠.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해요.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적절한 때 용기를 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나쁜 말은 하지 마. 오늘 하루 동안 저속한 말은 하지 않기로 해 보자.”

단테 시, 19세, 멕시코 푸에블라

친구와 대화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우선, 저는 그 친구와 대화하기 전에 기도하겠어요. 그런 다음,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화가 났을 때는 대응하지 말라는 등의 조언을 해 줄 거예요. 또, 저의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응당샤 베, 18세, 콩고 민주 공화국 김반세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 주세요

나무라지 말고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재미있고 건전한 활동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고, 악기 배우기, 형제자매와 놀기, 집안일 돕기 등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코바베 장로, 19세, 올레드 장로, 19세, 중국 홍콩 선교부



노력하면 좋아집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욕설이나 거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화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디오 게임에 과도한 시간을 쓰면 가족 및 친구와의 소통에 제약이 따르며, 건전하고 보람 있는 활동을 하면 이를 멈출 수 있다고 말해 주겠습니다. 실수를 알아차렸다면,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계속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잘하게 되니까요.

오조마 오, 17세, 나이지리아 아비아

선한 영향력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쁜 결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말과 행동을 통해 바르고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모사이야 엠, 17세, 미국 유타 주

“벌금통” 만들기

친구들이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쓰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벌금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친구들은 벌금통에 돈을

넣습니다. 청소년 야영이나, 교회 행사, 기타 재미있는 활동에 친구들을 초대한다면 비디오 게임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쏟지 않도록 친구를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오원 피, 13세, 미국 하와이 주



다른 사람 돌보기

훌륭한 모범이 되는 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을 막으려 애쓰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친구들은 제 조언이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거예요. 또한, 친구들의 행동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적절하지 않다면, 나쁜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게



마음에서 본이 되십시오

“우리는 마음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이 말씀은 삶에서 친절과 감사, 용서와 선의를 보이도록 힘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질은 주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본이 되고 빛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87쪽.

되는지를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알레한드라 티, 17세, 멕시코 치와와

기도하십시오

친구들이 적절치 않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게임을 많이 하지 않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기도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조슈아 엘, 14세, 미국 오리건 주

다음 질문

“여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을(원할 경우) 2017년 9월 15일 토요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작품 제출” 클릭)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워드 또는 지부, (4)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표현의 정확성과 분량 조절을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로리 플러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주님 나를 믿으시니 진리 편에 서리라.”(어린이 노래책, 85쪽)
“야, 이거 봐 봐.” 책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며
 말했다요. 그건 종이를 접어 놓은 것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잡지책에서 찾은 거야.” 책은 종이를 펴서 타란에게 보여
 주었어요.

하지만 타란은 그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진이란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죠. 타란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책은 별 일이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그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말했어요. “넌 아직 얘기구나?”
 타란은 신경쓰지 않았어요.

타란은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도와 와플을 함께
 만들었어요. 의자를 끌고 와 식탁 구석에 놓고 앉자 엄마가
 타란에게 앞치마를 입혀 주셨어요.

“엄마.” 타란이 말했어요. “제가 랜스네 집에 있었을 때, 어떤
 친구가 옷을 벗고 있는 사람 사진을 보여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돌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엄마는 반죽이 담긴 그릇을 내려놓으시고는 타란을 안아 주셨어요. “정말 잘했네. 이야기해 주어서 고마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엄마가 가정의 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타란이 밀가루 반죽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말을 기억해 주어서 기쁘구나. 누가 나쁜 사진을 보여 준 게 이번이 처음이니?”

타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어쨌든 엄마에게 말해 주어서 고마워. 엄마한테는 뭐든 물어보고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 알지? 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엄마에게 말해 주면 좋겠어. 엄마가 도움이 될 수 있게. 엄마는 절대 화내지 않을 거야.” 엄마는 타란의 코 끝에 밀가루를 살짝 묻히셨어요.

타란은 웃으며 밀가루가 묻은 코를 살짝 찡그렸어요.

“네! 알아요.”

저녁 식사 후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누가 타란에게 나쁜 사진을 보여 주려고 했다는구나. 우리가 가정의 밤에서 얘기했던 그런 사진 말이야.”

리나가 손을 번쩍 들면서 말했어요. “그 이야기 기억나요!” 다라는 아직 그런 걸 기억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소니아가 타란에게 물었어요.

“고개를 돌리고 다른 데로 갔어.” 타란이 말했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타란이 그렇게 훌륭한 선택을 해서 엄마 아빠는 정말 행복하구나.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엄마에게 이야기해 줘서 사랑스럽기도 하고.”

아빠는 식탁 너머로 손을 내밀어 타란과 하이파이브를 하셨어요. “잘 하고 있어, 친구.” 리나와 다라는 박수를 쳤고, 소니아가 타란을 보며 환하게 웃어 주었어요.

“그 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오늘 특별 간식을 먹겠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아빠의 말씀에 모두들 신이 났어요.

엄마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오셨고, 타란과 소니아가 얼른 그릇과 숟가락을 가지고 왔어요.

“좋아, 친구.” 아빠가 숟가락으로 타란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맛을 먹고 싶으신가?”

모두가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든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질문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엄마 아빠에게 말해 주면 좋겠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는 행복할 거야.”

“그러면 또 아이스크림 먹는 거예요?” 소니아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크게 한 숟가락 뜨며 물었어요.

엄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가끔은 먹자꾸나.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야. 그걸로도 충분하단다.”

타란은 마지막 남은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에게 말씀드렸을 때 타란도 그런 행복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





도전 과제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것만을 읽고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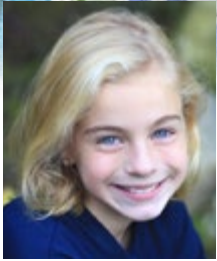
누군가가 나쁜 것을 보여 주려 할 때 싫다고 말하는 법을 연습한다.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

부모님이나 내가 신뢰하는 어른과 함께 외설물이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가족과 함께 미리 다음 계획을 세운다. 나쁜 사진이나 영상을 보게 되었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부모님이나 내가 신뢰하는 어른에게 이야기하고, 나쁜 생각이나 느낌을 지워 버린다.

아래에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보세요.

셸든 자매님의 기적



엘레스 디, 10세, 미국 워싱턴 주

셸 든 자매님은 최고의 초등학교 회장님이세요! 자매님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시고 재미있으시죠. 자매님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진행하기 위해 일어서시면, 우리는 모두 두 손을 들고 흔들며 이렇게 외쳐요. “셸든 자매님 시간이다.” 그러면 자매님도 좋아하세요!

2015년 초에 셸든 자매님은 암이 재발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이번이 다섯 번째 재발이었죠! 자매님은 저희 모두에게 암이 무엇인지, 그게 왜 힘든 병인지 설명해 주시며 가끔은 교회 모임을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매님의 머리가 모두 다 빠질 거라는 이야기도 해 주셨죠. 자매님은 우리에게 암이 나올 수 있도록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때 우리 초등학교는 도움의 손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는 종이를 손 모양으로 자른 다음 그 위에 우리가 봉사한 것들을 적는 방식으로 하는 거였죠. 초등학교 회장단이신 애쉬비 자매님은 셸든 자매님을 위해 도움의 손길 퀼트를 만들어 보자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 셸든 자매님이 우리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모든 아이들은 하트 모양을 그리거나 자신의 손을 대고 선을 그어 손 모양을 그렸어요. 그리고 활동의 날에 모여서 그걸로 퀼트를 만들었죠. 우리는 바느질을 하고, 다림질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퀼트에 듬뿍 담았어요. 어떤 아이들은 셸든 자매님을 기억하기 위해 끈을 반지처럼 손가락에 감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 퀼트를 셸든 자매님께 드렸어요. 자매님은 항암치료를 받을 때 그 퀼트를 가지고 들어가셨고, 우리의 사랑을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가장 좋았던 건 셸든 자매님이 초등학교 전체 아이들에게 간증을 하셨을 때였어요. 자매님은 우리가 자매님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자매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매님이 항암치료를 견뎌 내는 데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셨죠. 사실 저는 자매님이 견뎌 내지 못하시면 어떡하나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매님이 견뎌 내시리라는 믿음도 있었죠. 이제 셸든 자매님은 암에서 완치되었습니다! ■

니파이처럼



메이슨 제이, 8세, 미국 유타 주

저는 초등학교에서 니파이가 얼마나 충실하고 의로웠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니파이처럼 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저를 때렸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동생을 때리고 싶었지만, 저는 니파이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동생을 때리는 대신, 저는 다른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화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한번은 동생이 제 장난감 비행기를 허락도 없이 가지고 놀았어요. 동생이 비행기를 망가뜨릴까 봐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비행기를 돌려 달라고 친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비행기를 돌려줬어요!

가끔은 옳은 선택을 하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면 저는 예수님과 니파이의 모범을 생각해요. 또 매일 밤 경전을 읽으면 다음 날 내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니파이처럼 충실하게 생활한다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요. ■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모두 그분의 아들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 친구들 중 어떤 아이들은 교회에 혼자 와요. 침례 허락을 받지 못해서 더 기다려야 하는 아이들도 있죠.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거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친구의 이름을 알고 불러 주는 것도 좋아요.



그 친구에게 같이 앉자고 해 보세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조금 더 마음을 열어 보세요.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그 친구에 대해 생각하고 환영해 주세요.



“누구든지 이들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49~52쪽에서 발췌함.

새로운 친구에게 다가가기



닐 엘 앤더슨 장로님과 그분의 부인인 캐시 자매님은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야외 텐트 아래에서 교회 모임을 했는데, 텐트 주변에는 큰 울타리가 있었어요. 앤더슨 장로님은 어린이들이 울타리 밖에서 안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앤더슨 자매님이 장로님께 물으셨어요. “어보, 저 아이들을 들어오라고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앤더슨 장로님은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울타리 밖의 어린이들을 안으로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안으로 달려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모임에 초대되어서 기뻐했어요.

또, 앤더슨 장로님은 조슈아라는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어요. 조슈아는 교회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준 소년이었어요.

우간다에서 온 조셉이라는 소년이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 조셉은 가족도 없이 혼자였기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때 선교사들은 조셉을 조슈아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조슈아는 조셉에게 서로 친구가 되자고 했어요. 조슈아는 조셉에게 어린이 노래책을 건네 주었고, 옆자리에도 함께 앉았어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모두 함께 조셉에게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주었어요. 모두들 조셉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끔 도와주었어요. 특히 조슈아가 큰 역할을 했죠. 조셉과 조슈아는 나중에 선교사로 봉사했고, 서로 동반자가 되었답니다!

앤더슨 장로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 번 기억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혼자라고 느끼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ですよ. ■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는 엔칠라다(옥수수 빵에 고기를 넣고
매운 소스를 뿌린 멕시코 음식. 역자
주)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며, 민트 그린 색을 좋아해요. 제
부모님은 동아프리카의 국가인 부룬디
출신이세요. 저는 탄자니아의 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미국
유타 주에 살고 있죠.



Amakuru!
Jambol!
Hello!
저는 안젤리나예요!



특별한 이름

저는 영어와 키룬디어라는 아프리카 언어를 할 줄
알아요. 제 이름은 “나는 내가 가진 것에 언제나
감사하겠다”라는 뜻이지요. 저는 많은 친척들이 가까이
살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가족과 함께

휴일 동안 저희 가족은 할머니 댁에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우리는 삼부사스(기름에 튀긴 밀가루 반죽으로 만드는데, 그 속에 쌀이나 고기가 들어 있다.)를 먹었어요. 식사 후에 부모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삼촌과 사촌은 드림을 찢고, 저와 동생은 춤을 쳤어요!

다른 사람 돕기

저는 크먼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빨래, 막내 동생 기저귀 갈기, 동생 소피 숙제 도와주기 등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조던 라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발췌, 미국 유타 주



새로 온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여 주세요

-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할 줄 모르다면, 통역해 줄 누군가를 찾으세요.
- 그 언어로 인사하는 법을 배워 보세요. 키룬디어로는 “아마쿠쿠”라고 하고, 스와힐리어로는 “잠보”라고 하면 됩니다.
- 와서 같이 놀자고 초대해 보세요.

새로 온 사람 돕기

저는 초등학교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좋아요. 저희 지부에는 키룬디어를 하거나 스와힐리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영어로 진행되거든요. 초등학교에 새로 온 아이들이 만약 키룬디어밖에 못 한다면, 제가 통역을 해 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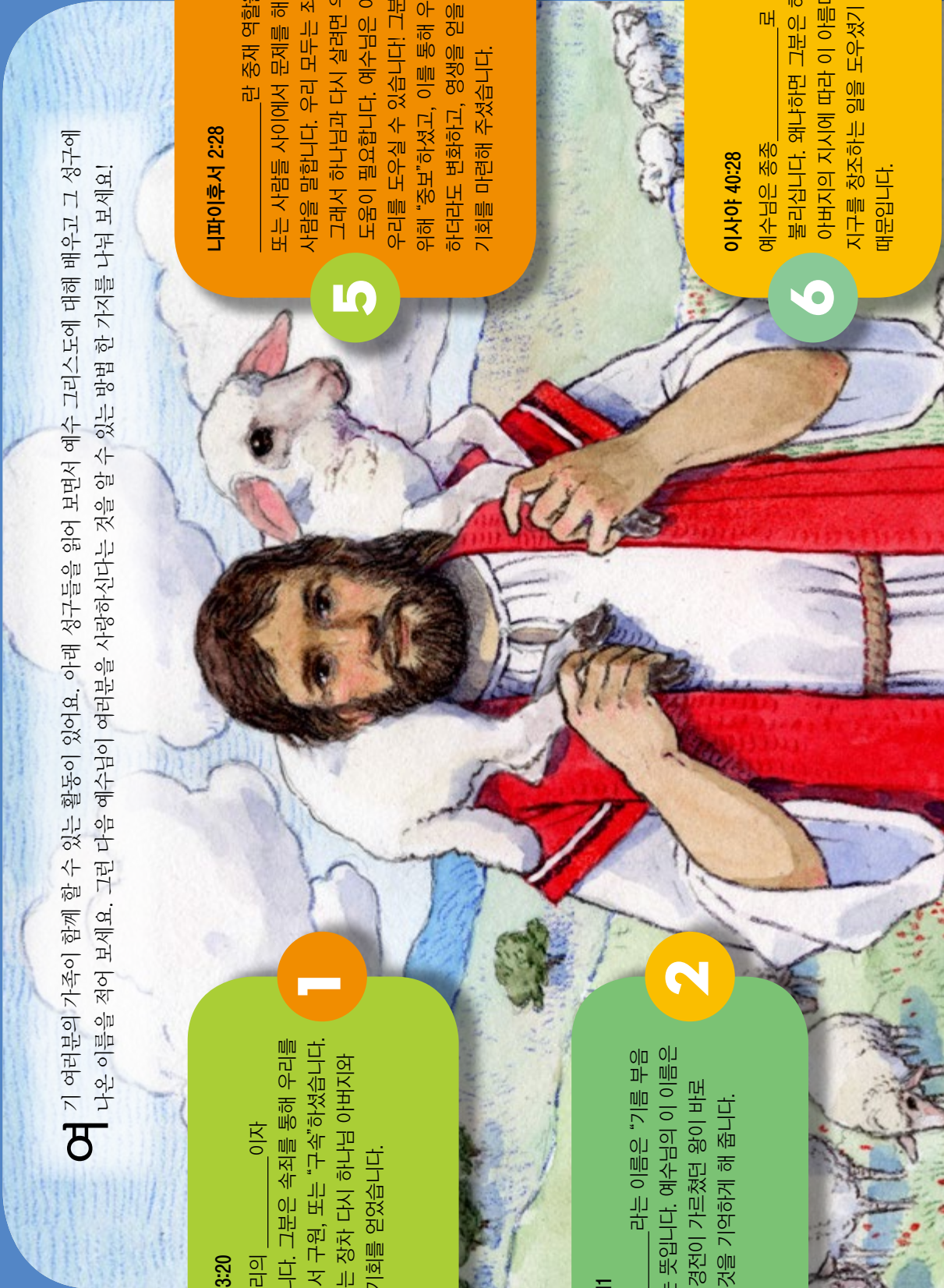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와 사진과 함께 보내 주세요. 부모님의 동의서도 함께요. liahona.lds.org에서 제출하거나(“작품 제출”을 클릭하세요)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그리스도에 초점을 둔 이 가정의 밤 아이디어를 참고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들



여 기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요. 아래 성구들을 읽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 성구에 나온 이름을 적어 보세요. 그런 다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나눠 보세요!

모사이아서 3:20

예수님은 우리의 _____ 이자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속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 또는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1

에이롤서 1:11

_____ 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은
선지자들과 경전이 가르쳤던 왕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2

니파이후서 2:28

_____란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살려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변화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5

이사야 40:28

예수님은 종종 _____로
불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는 일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6

아브라함서 2:8

예수님이 지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분은 _____,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셨습니다. 이 이름은 매우 성스러운 것이기에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함부로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으며, 그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주님”과 같은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3

시편 2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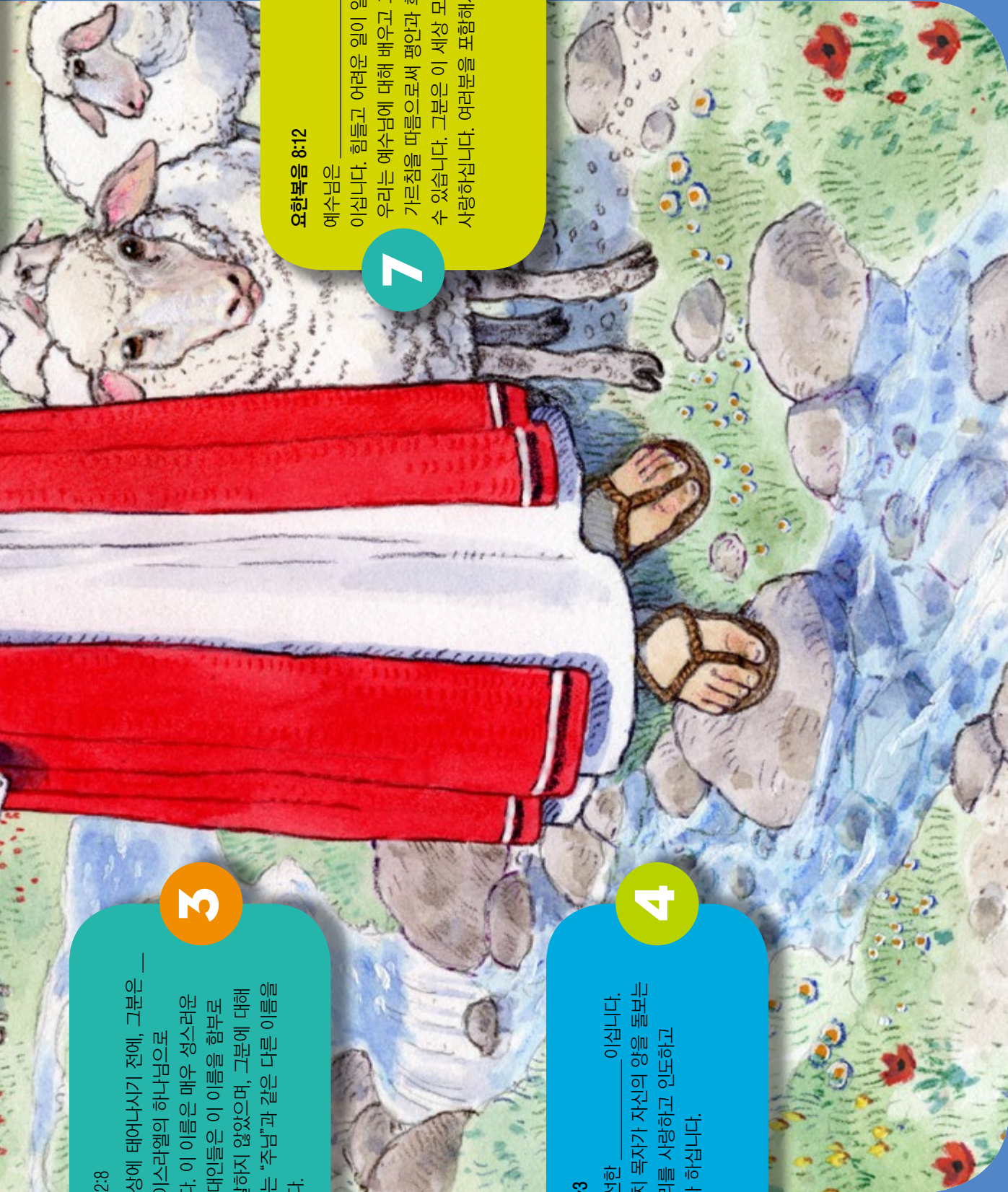
예수님은 신한 _____ 이십니다. 그분은 마치 목자가 자신의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4

요한복음 8:12

예수님은 _____ 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평안과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7



삽화: 크리스토퍼 칸

Mormon.org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세요

김 웹 리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였어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기도로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한번은 베드로가 잘못을 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여쭙 적이 있어요. “일곱 번까지 용서해야 하나니까?” 베드로는 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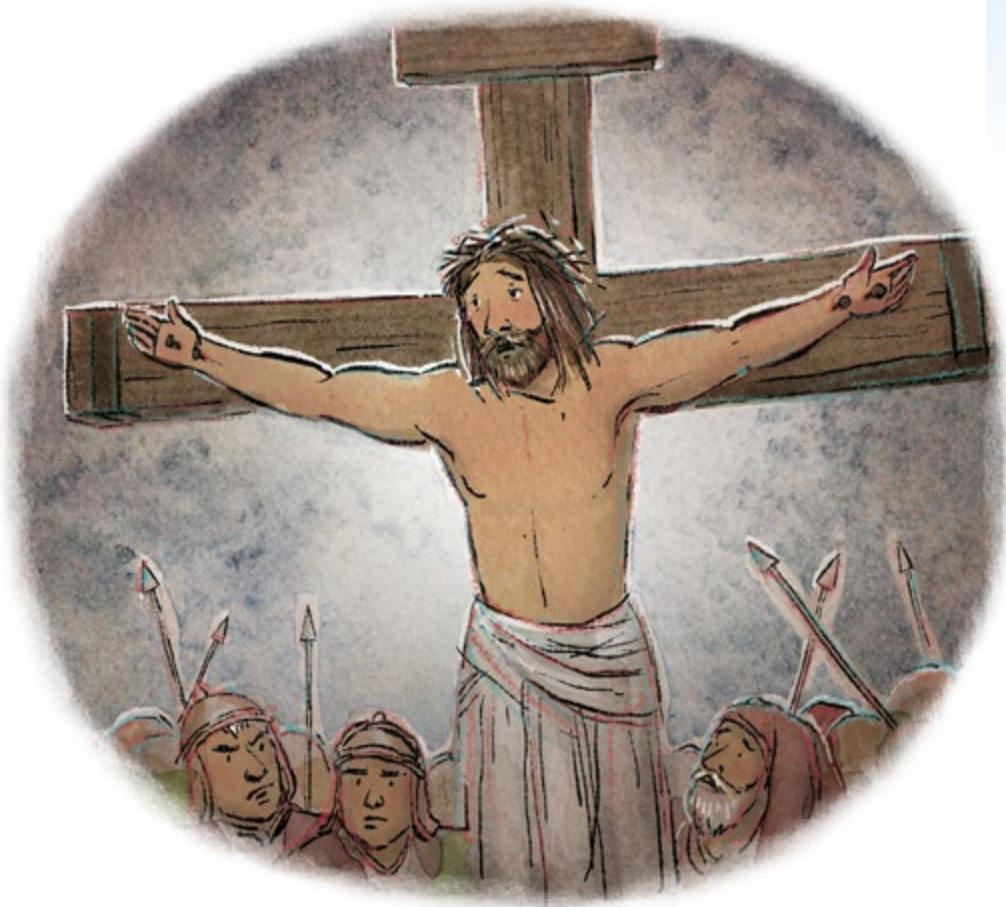
그러자 예수님은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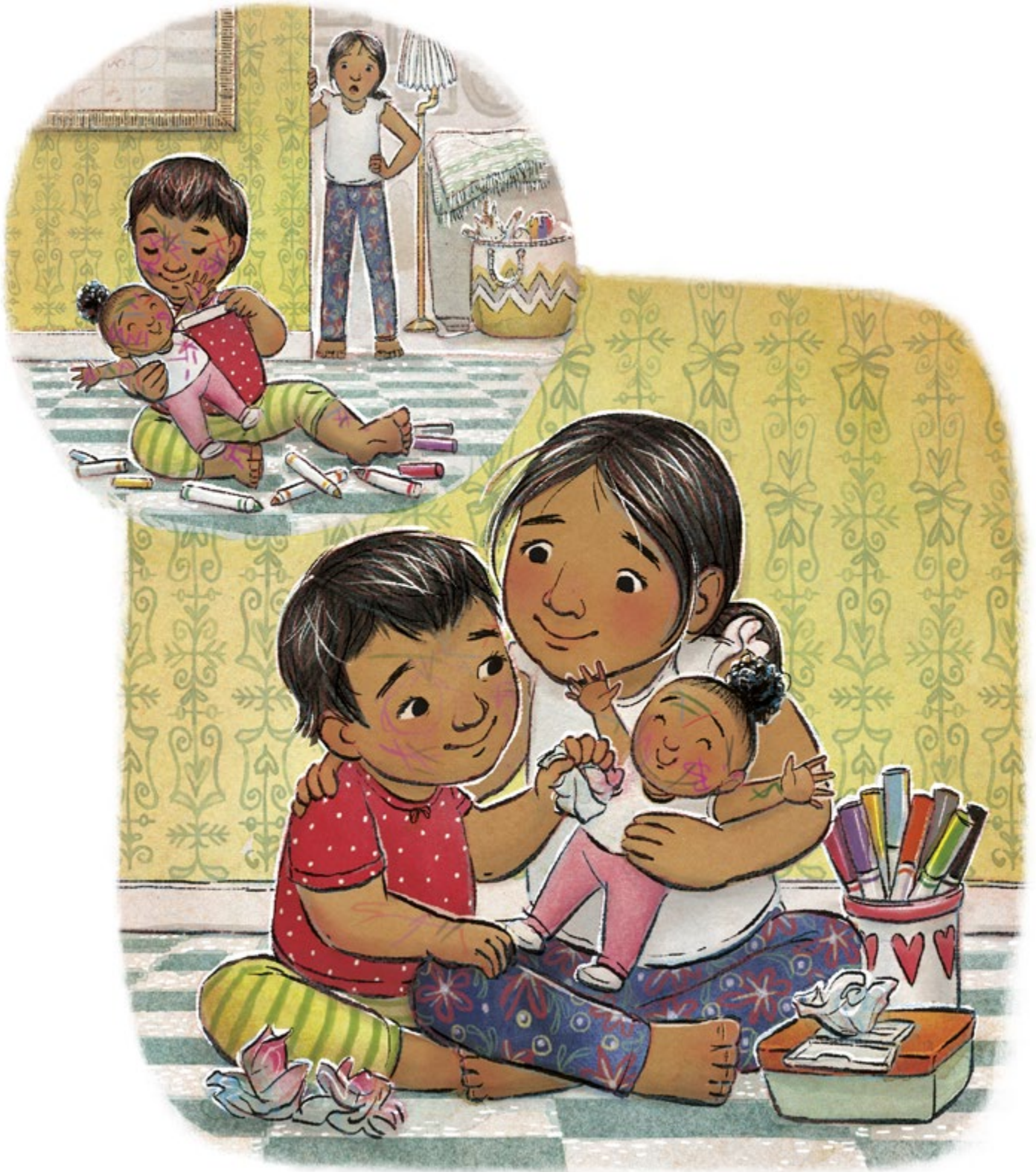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었더라도
 누우치는 사람은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한 여인은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그분의 발이
 씻겨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 나쁜 것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분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박은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박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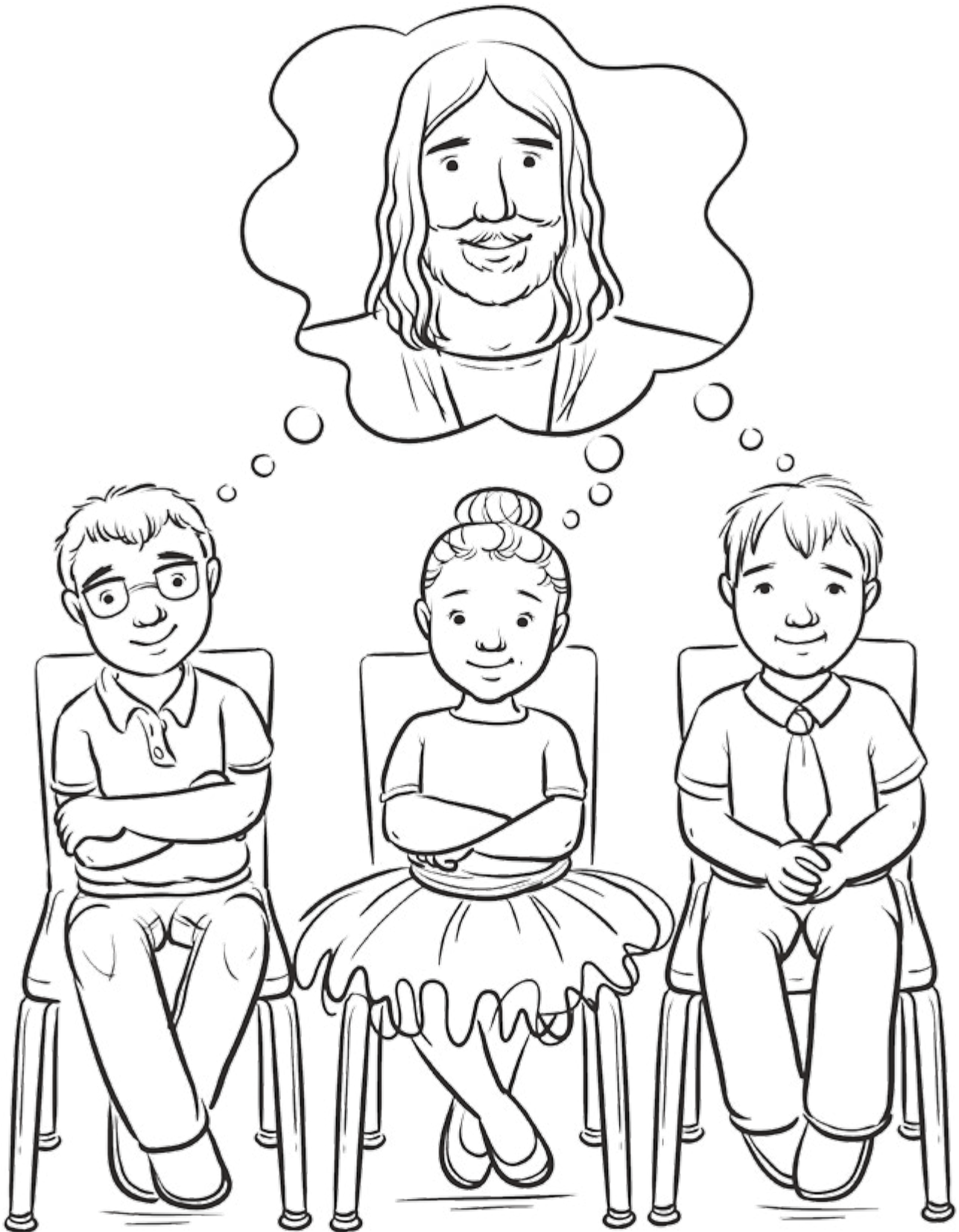




예수님이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

마태복음 18:21~22; 누가복음 7:37~48; 누가복음
11:1~4; 누가복음 23:34 참조.

나는 경건할 수 있어요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돌아오십시오!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상했거나 [교회에] 흥미를 잃었거나 혹은 그 외의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를 멀리하셨던 분들에게, 우리와 함께 다시 온전한 우정을 나누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충실한 회원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만연된 암흑의 세력에 대항하는 위대한 투쟁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의 일부가 됨으로써, 여러분은 영혼의 깊은 갈망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위안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에서 집행되는 축복과 성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속된 세상에 살지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위대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동적으로 행하지 않고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강건한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니파이후서 2:26 참조)

몇 년 전에 교회 제일회장단은 [이러한] 권고를 발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저활동 회원이나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들, 또는 심각한 죄를 범해 회원 자격이 정지되거나 파문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라고(교리와 성약 64:10) 말씀하신 주님의 뜻대로 잘못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교회 회원들에게 권고합니다. 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지 않게 되었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여 성도들과 함께 달콤하고 충족감을 주는 우정의 열매를 다시 맛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도] 어색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 줄 사랑과 기꺼이 도와줄 손길을 찾을 것임을 확신합니다.”(Church News, Dec. 22 1985, 3)

...저는 진심으로 그리고 겸손히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값진 유산,”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84~86쪽에서 발췌, 번역 일부 수정.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청년 성인

종교 교육원은 어떤 곳입니까?

종교 교육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곳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가? 종교 교육원이 왜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곳인지 알아보자!



44쪽

청소년



56쪽

가족 기도 챔피언

여러분의 가족이 가족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가? 여러분이 가족 기도의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열 가지 제언을 활용해 보자.

어린이

예수님의 이름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분의 다른 이름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해 보세요.



74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1907년에 촬영된 위 사진의 배경 멀리에 보이는 커틀랜드 성전은 이 경륜의 시대에 지어진 첫 번째 성전이였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시험을 통해 이 성전을 보았고, 성전의 전체적인 디자인도 알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 95편 참조) 커틀랜드 성전은 1836년 3월 27일에 헌납되었다. (교리와 성약 109편 참조) 한남식에서 있었던 위대한 영적 경험에 대해 엘리자 알 스노우는 이렇게 기록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났는가 하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308쪽)

사진: 조지 에드워드 앤더슨,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